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3월 2일)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3월 30일 서울 백련사에서 개최된 '태고종 제21세 종정 추대법회'에서 운경 대종사가 다례식을 마치고 법회 봉행 장소인 무량수전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추대법회에는 육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 종정 추대를 축하하고 태고종 발전을 염원했다.

운경 대종사 "불교인들이여 깨어나라"

태고종, 제21세 종정예하
운경당 상보 대종사 추대
3월 30일 백련사서 추대법회
대중 3000여명 운집해 봉행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불교태고종의 최고 신성인 종정에 운경당 상보 대종사가 추대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3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에서 운경 대종사를 태고종 제21세 종정예하로 추대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추대법회에는 육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 운경 대종사의 종정 추대를 축하하고 태고종의 중흥을 염원했다.

종정예경실장 동허 스님(백련사 주지)이 운경 대종사에게 법의 상징인 불자와 주장자를 봉정했다.

종정으로서 법석에 오른 운경 대종사는 취임법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깨어남'을 강조했다. 운경 대종사는 "작금의 불교계는 불교역사 왜곡으로 가장 혼란한 시기에 처해 있지만 수많은 종단에서 부처님 가르침이나 조사들이 전한 종지를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불퇴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원효 스님의 화쟁정신이나 태고 보우 스님의 원융무애 사상, 만해 스님의 불교유신론에서와 같이 우리 불교인도 다시 한 번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운경 대종사는 취임 법어에서 '깨어남'을 강조하고 모든 것을 바로 보는 수행자가 되길 당부했다.

운경 대종사는 정각을 이룰 원력을 세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운경 대종사는 "우리 종도는 항상 수행자라는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수행은 강원이나 선방이나 염불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도재 재장이나 법회 도량, 종무행정 집행 시에도 모두 수행이다. 수행자는 행주좌와 어묵동정을 항상 해야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봉행사에서 "운경 종정예하는 태고 보우 원증국사의 수행가풍을 면면히 이어받아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며 본 종의 종지, 종풍을 선양하고 그 위상을 드높인 참된 수행자의 표본"이라면서 "오늘 추대식은 한국불교태고종의 종통 계승뿐만 아니라 1700년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의 정통 적자 종단으로서 미래를 견인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소중한 법석"이라고 말했다.

각계각층에서도 축사도 이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 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태고종도들이 종정예하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 뜻으로 더욱 결집하고 수행정진력과 지혜의 덕화를 호지해 무량한 등불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태고종은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사상을 우리 시대에 구현하는 대승 교화 종단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해 왔다"면서 "종정예하 추대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더 크고 깊은 울림을 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기원했다.

이날 추대법회 동참대중들은 발원문에서 새로운 종정 취임을 계기로 태고종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 국민 모두가 나날이 행복해지길 발원했다.

한편 운경 스님은 일제 강점기인 1943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출생했다. 1945년 광복 후 부모와 함께 귀국, 경주와 대구에서 초중고교를 마쳤다. 1960년 서울 백련사에서 박설호 스님을 은사로, 박금봉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태고종 종무위원, 태고종 중앙종회 2~6대 의원 등을 역임했고 백련사 주지를 지냈다. 월간불교사 주간, 동방불교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태고종 원로회의는 지난해 12월 의장 도광 스님 등이 참여한 제21세 종정추대회의를 열고 운경 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나눔의집 역사관 운영 특수법인으로 해법 모색

존립 기로 선 '나눔의집'
〈下〉 나눔의집, 앞으로의 방향은

건강 악화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박옥선·강일출·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하면 나눔의집에 소속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집의 양로시설 운영은 일반적인 양로시설과 달리 할머니들의 별세 이후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나눔의집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의 특수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부설로 역사관을 운영해왔지만 할머니들이 모두 별세한 뒤 양로시설이 사실상 폐쇄되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역사관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 스님은 3월 29일 〈현대불교〉에 "경기도와 나눔의집이 함께 특수법인을 설립하고 토지와 건물 등 나눔의집 자산을 옮겨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국가에 귀속될 자산을 특수법인으로 이관해 삼보정재의 유출을 막는 한편, 경기도의 공적 자금 투입으로 역사관이 공공성을 확보한 채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갈수록 후원금이 줄어들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눔의집 입장에선 앞으로 핵심사업이 될 역사관 운영 경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성화 스님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광주시와 3자로 특수법인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역사관을 운영하는 데만 매년 8~10억원의 재원이 필요해 광역단체가 아니라면 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수법인이 설립돼 나눔의집 자산을 옮긴 뒤에는 기존 사회복지법인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합병하거나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 해산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화 스님은 지자체와의 특수법인 설립보다는 역사관의 국가시설 전환을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꼽으면서도 한일협력을 외교 과제로 삼아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공동문서를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성화 스님은 또 그동안 나눔의집을 조계종 중심으로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공적인 영역과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 자비사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종교를 떠나서 진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추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운영불가
경기도와 특수법인 설립한 뒤
나눔의집 자산 이관하는 방향
"역사관 운영 공공성 담보돼"
총선 이후 논의해 연내 결론

후대에 교육하는 공간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화 스님에 따르면 경기도와 특수법인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총선 이후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낸다는 게 나눔의집 계획이다.

또한 월주 대종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나눔의집 운영에 제17교구본사 금산사가 중심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특수법인 설립에 대한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성화 스님은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께서도 나눔의집은 금산사가 아닌 조계종의 성과라고 하셨다"며 "금산사에 연연하지 않고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월주 대종사를 빛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 이민우 기자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15년 만의 특별구족계…'전법도생' 다짐

조계종, 3~5일 통도사서 수계
20년 이상 구족계 받지 않은
사미 42명 · 사미니 13명 동참
총 대상자 140명 절반 못 미쳐

양산=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행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특별법 제정으로 봉행하는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조계종으로 출가해 사미·사미니계를 받고도 20년 이상 지나도록 구족계를 받지 않은 스님들을 위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이 15년 만에 봉행됐다. 여법한 수행풍토 환경을 조성하고, 예비승 단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종단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하지만 총 대상자 140명 규모에 비해 참여인원이 55명밖에 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불기 2568년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입재식에서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수계를 통해 이루어진 청정계체를 훼손치 않고 대중이 모여 화합승가를 구성하여 육화로 화합하며 정진하는 일은 불조의 혜명을 길이 전승하는 소중한 일이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화합승가를 소중히 여기시어 '무량한 수의 아라한보다 하나의 화합승가가 중요하며, 화합승가가 유지되면 정법이 살아있는 정법시대라' 하셨다"고 수행과 화합을 강조했다.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는 또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에 전국 각 사찰에서 발심 출가한 수계제자들이 오랜 세월 불법문중에 선근인연으로 세속의 온갖 장애를 여의고 신심과 원력으로 모였다. 지금 계단 아래 엎드려 큰 서원을 발하옵고 부처님의 정통법인을 받으려 하오니 가피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부처님 전에 고불문을 올렸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훈시를 통해 "수계제자 여러 스님들은 앞으로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 받는 중생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과 부처님의 부촉을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되었다"며 "계는 부처님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위상을 정의롭게 하고 스스로 정행의 몸가짐으로 오로지 계를 생명으로 하여, 번뇌와 무명의 장애를 끊는 수행정진을 하되 여구두연(如救頭燃)의 각고정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수계대법요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계를 받는 제자들이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이 없이 용맹 정진할 것을 발원하오니 증명하여 주옵소서"라며 "또한 이러한 인연공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날로 늘어나고 법의 수레바퀴가 쉼 없이 굴러 다함이 없는 법계가 화장세계로 꾸며지게 하소서"라고 발원했다.

특별구족계에는 사미 42명, 사미니 13명 총 55명이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전법도생을 위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서원했다.

안성 칠장사 "자승 대종사 전법 유훈 계승"

추모다례 · 박문수체험관 기공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비롯
사부대중 500여 명 동참해
칠장사 지역사회 나눔 실천

지강 스님 "최선 다해 전법"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이 자승 대종사 추모다례재에서 '부처님 법 전하겠다'는 원력을 다지는 모습.

지난해 11월 29일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원적에 든 안성 칠장사에서 '부처님 법 전하자'는 사부대중의 다짐이 울려 퍼졌다.

칠장사(주지 지강 스님)는 3월 30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번 다례재는 자승 대종사가 소신공양하며 전소된 요사채를 복구하는 의미를 담은 '칠장사 비전 박문수체험관' 기공식도 겸해졌다. 칠장사는 어사 박문수가 과거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던 중 하룻밤을 묵으며 불공을 올려 장원급제 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의원 원행 대종사, 포교원장 선업 스님, 불교신문사장 오심 스님, 해봉문도회 의장 탄원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 김보라 안성시장, 인도순례에 동참한 이규민 전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은 다례재에서 "(자승) 큰스님께서 우리 사제는 무엇으로 포교를 하시려는가 물으셨을 때 마음의 준비는 돼 있지만 공력이 부족해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며 "오늘은 부처님 법 전하자는 원력을 실천하는 자리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모든 분께 기쁨을 드리는 칠장사 주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이어 동국대와 국립 한경대에 장학금 각각 1000만원을 기탁하고,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 승려복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안성시에는 쌀 10kg 800포를 기부하며 자승 대종사와 약속한 포교에 앞장섰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자승 대종사 영전에 게송을 지어 바치면서 "법을 전하고 중생을 구하자. 이것이 스님의 기본 자세이자 부처님의 부탁"이라며 "자승 대종사는 수행과 자기관리에 철저했다. 수행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라고 추모했다.

원로의원 원행 대종사 역시 "자승 대종사의 역할로 한국불교는 몇 단계 업그레이드됐고, 종단사에서 후학들이 잊으면 안 되리라고 본다"며 "한 세상 태어났다 가는 것이 진리인데 우리 사부대중은 불문에 들어와 자승 스님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성=윤호섭 기자

6대 총림, 6월까지 1차 실사 나선다

총림실사특위, 총림 자격요건 충족 여부 조사

조계종 6대 총림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총림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사가 부처님오신날 전후로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재안 스님)는 4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전국 총림 실사를 위한 기본적인 논의를 실시했다. 지난 23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구성이 결의된 총림실사특위는 위원장 재안 스님을 비롯해 도성·덕현·설암·태진·탄웅·현무·각진·성제·성원·혜도 스님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총림실사특위는 첫 회의에서 성원스님을 간사로 선출하고, 오는 6월 말까지 6대 총림에 대한 1차 실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실사는 위원 전원 참석을 전제로 하되 최소 8인 이상이 함께 움직인다. 총림실사는 총림의 자격요건인 강원을 비롯한 교육기관 운영 현황뿐만 아니라 총림 구성원들이 느끼는 총림 운영실태까지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위원장 재안 스님은 "출가자 급감으로 인해 총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실태조사를 통해 총림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일깨워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전국비구니회, 2000여 장병에 수계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서
수계 법회…후원금 전달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불자 훈련병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개최하고 장병들을 응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30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진오 스님)에서 회장 광용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광용 스님은 법문에서 "수계를 받은 에너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호법신장과 불보살이 장병들을 옹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장병들은 전국비구니회 스님과 조계종 포교사단 충남대전 지역단의 연비 의식 도움 속에서 참불자의 삶을 서원했다.

법회 후 광용 스님은 호국연무사 주지 진오 스님에게 후원금 2500만원을 전달하며 수계법회 활성화를 염원했다.

임은호 기자

운문사총동문회, '천년을세우다' 동참

불사 기금 1000만원 기탁



비구니스님들의 교육도량인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석우 스님)가 4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세우다'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사진〉

총동문회장 석우 스님은 "운문사 승가대학 연수를 직접 찾아주시고 격려의 법문을 해주신 총무원장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스님들이 법문을 긍정적으로 받아줘 다행"이라며 "내용을 보완해 더 좋은 법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민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하이키 리이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진우 스님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여라"

진우 스님, 서울국제불교박람회서 청년들과 담마토크

아이돌그룹 하이키 참석 고민 상담
진우 스님 "청년시절 번아웃 왔다"
청년세대 고민 공감하며 조언 건네

이민우 기자 alsdn285@naver.com



진우 스님이 아이돌그룹 하이키 멤버들과 담마토크를 하며 청년들의 고민에 조언을 하고 있다.

'재밌는 불교'를 직접 접할 수 있는 2024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4월 4일 SETEC 서울무역컨벤션센터에서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개막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박람회장에서 청년들을 직접 만났다. 담마토크를 통해 청년대표 인기 아이돌그룹 '하이키'와 소통하고 청년세대들이 겪는 다양한 인생 고민과 그에 대한 해답을 전하면서 청년들의 불안함을 풀어주고자 노력한 진우 스님은 그만큼 청년세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진심이었다.

진우 스님은 담마토크에 앞서 스스로를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스님은 종교인으로서의 권위가 청년들과의 거리감을 만든다는 생각에 자신을 '1980년대부터 인터넷 컴퓨터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해온 사람'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명상 콘텐츠를 구독자들에게 뉴스레터로 보낸 인플루언서 얼리어답터' 등으로 소개하면서 청년들과의 거리감을 좁혔다.

진우 스님은 직접 박람회장을 찾아 청년들을 만난 이유를 "젊은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스님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참석하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행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옆에서 봐왔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불교의 명상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청년들의 고민을 듣기에 앞서 먼저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중도의 가치와 욕심없는 삶의 중요성을 설했다. 스님은 "태어난 시간이 있다면 죽는 시간도 있고 밀물이 있다면 썰물도 있다"며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고통의 질량은 같으니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중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한 "현재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욕심이 없다. 욕심이 큰 사람은 그만큼 불행한 일을 많이 당하게 돼있다"며 청년들에게 물질적인 욕심을 버릴 것을 주문했다,

법문 이후 본격적인 고민상담이 이뤄졌다. 진우 스님은 '생각이 너무 많은 데서 오는 괴로움'과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번아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등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고충을 직접 들었다.

하이키 멤버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으며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룹 리더 서이 씨는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걷거나 운동을 하는 등 몸을 움직인다"며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진우 스님의 생각을 물었다. 진우 스님은 이에 "생각이 너무 많을 때 몸을 움직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그보다 생각이 많은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생각이 많고 적음에 집착하지 말고 편하게 내려놓으라"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그룹 보컬 리이나 씨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갖춰나가다 보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불교에서는 하나가 생기면 그 반대의 것도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지 않는 마음도 생긴다"며 "상반되는 두 감정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니 스스로를 사랑하느냐 않느냐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더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했다.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법을 묻는 세 번째 질문에 진우 스님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설명하고 청년들의 고충에 공감했다. 스님은 "나 역시 청년일 적 우울증과 번아웃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출가한 이후 그때를 되돌아보니 모두 감정에 집착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좋은 감정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해야 번아웃에서 벗어나 좋은 휴식도 취할 수 있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최고의 습관으로 명상을 소개했다.

진우 스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떨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명상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 방법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끈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남 탓을 하면 업으로 되돌아온다. 스스로 컨트롤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을 적극적으로 권한다"고 실천을 당부했다.

동국대, '석전 박한영 전서' 발간 추진

동국대 개교 120년 행사 일환
석전 스님 저서·저술 등 '망라'
〈각종강요〉 등 새롭게 발굴해
2026년 1차분 10권 발간 예정


선운사 석전기념관에 있는 석전 스님 진영.

근대 불교학과 불교 교육 발전의 초석을 놓은 근대 선지식 석전(石顚) 박한영(朴漢永) 스님의 저서와 저술을 망라하는 전서 발간사업이 추진된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2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석전 박한영 전서' 발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석전 박한영 전서' 발간 사업은 윤재웅 총장이 총장 선거 당시 건학이념 구현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것으로 동국대 개교를 이끈 선지식 석전 스님을 선양함으로써 동국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를 위해 동국대는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에서 석전 전서 간행팀을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석전 스님의 자료는 중앙학림과 중앙불전의 교재로 사용했던 등사본 단행본과 노트 필기류, 그리고 활자본 등 다양하다. 1910~20년대 불교잡지인 〈조선불교월보〉 〈해동불보〉 〈불일〉의 편집인으로서 200여 편이 넘는 논설 및 시문·번역문이 있다. 여기에 불교 외 일반잡지, 신문 등에 다양한 글이 산재해 있고, 기존에 자료화되지 않은 비문과 현판, 서간문 등이 전국 사찰의 비림과 성보박물관에 산재해 있다.

기실 석전 박한영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용운, 조지훈, 서정주의 전집이 간행된 바 있고, 국학자로서 석전의 영향을 주고받은 최남선, 이광수, 정인보의 전서가 간행됐지만, 유독 석전 스님의 글은 본격적으로 집성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석전 스님의 자료는 불교학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많고 일반 독자를 위한 글이라도 순한문으로 된 경우가 많아 해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잡지 기고들은 국한문 혼용의 글이 다수 있지만 대부분 현토체여서 쉽게 읽히지 않는다. 자료의 분산, 대중적이지 않은 불교전문 교재와 해설, 난해한 한문 문장으로 인해 석전 스님의 저술과 글을 집성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이번 동국대의 사업 추진으로 석전 스님의 저서와 저술을 망라할 수 있게 됐다.

전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문학연구소는 저술편과 어록보유편으로 나눠 1, 2차분으로 전서를 출판할 계획이다.

1차분으로 발행되는 전서는 〈석전시초〉 등 단독 저술과 잡지에 연재한 연재물 등이 주를 이루며, 총 10책 발간이 계획돼 있다. 특히, 1차분 전서에는 최근 송광사에서 발굴된 〈각종강요〉나 〈종교학〉 강의노트 등 신발굴 자료들이 포함돼 의미를 더한다. 1차분 전서는 2026년 6월 동국대 개교 120주년 기념행사에서 봉정될 예정이다.

2차분 전서는 잡지 소재 200여 편의 글, 새로 발굴한 비문, 현판 등을 탈초·주해·윤문해 7책으로 출판하고, 자료 소개만으로 충분한 의의가 있는 자료를 3권의 자료집으로 2027년까지 펴낼 계획이다.

한편, 한국문학연구소는 오는 6월 27일 오후 1시 교내 문화관 4층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석전 박한영 스님의 신자료 발굴 성과와 전서 편찬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신중일 기자

"인류발전 기여하는 연구기관 거듭나자"

한마음과학원, 3월 30~31일
'모두의 내면 능력' 주제로
진주지원서 수련회 개최해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 이하 과학원)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에서 '모두의 내면 능력'을 주제로 회원 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수련회에는 과학원 원장 혜수 스님(한마음선원 이사장)과 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을 비롯한 40여 명의 과학원 회원들이 참석했다.

입재식에 이어 진행된 프로그램 '그때 그 마음'에서는 회원들은 마음속 생각과 체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마음공부의 소중함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공양 후 진행된 촛불재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밝히려는 참가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되새겼다.

이와 함께 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은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과학원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발전과 성장을 위한 화합과 수행의 의지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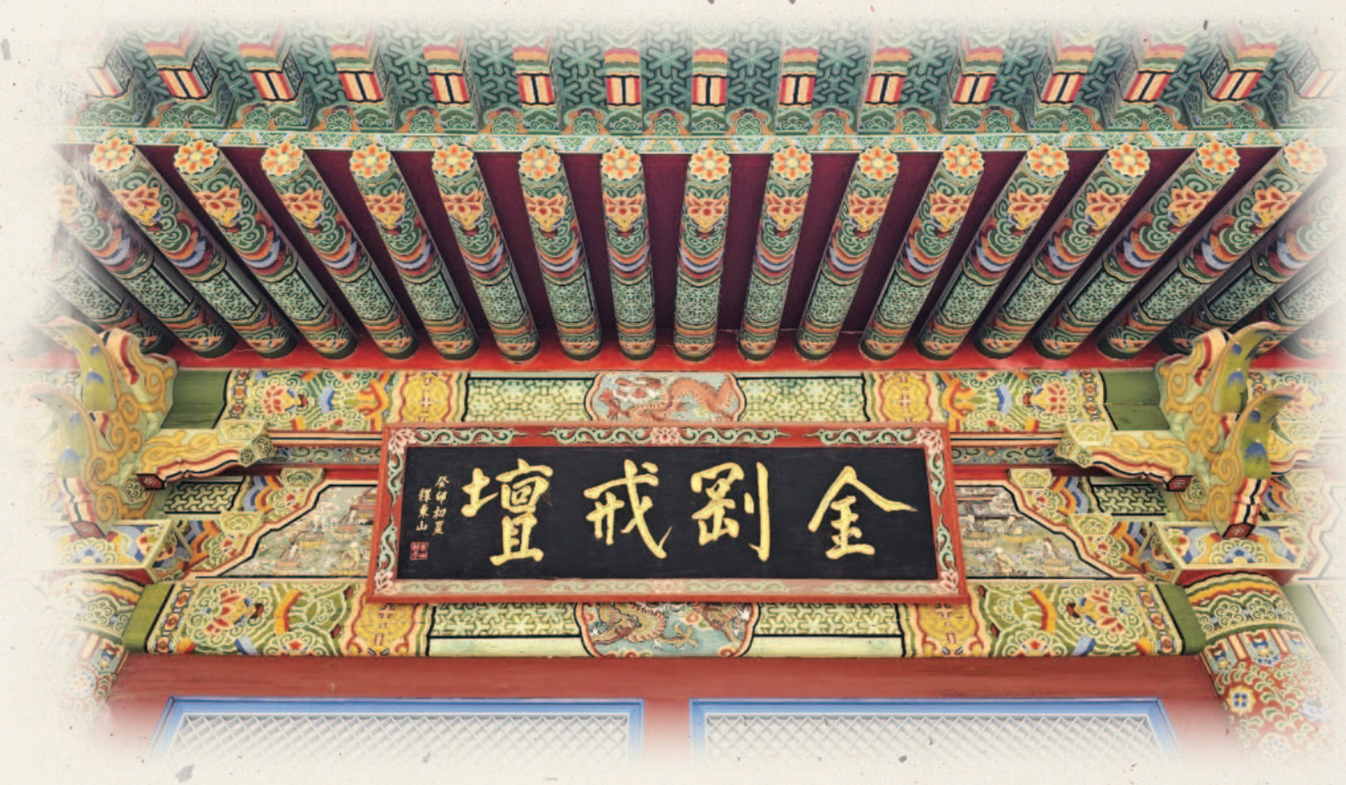
과학원 원장 혜수 스님은 "한마음과학원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지난 2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행 큰스님의 뜻에 따라 인류발전과 생명진화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된 것 같다"면서 "여러분 모두 내면의 주장자를 세우고 정진해달라"고 회원들에게 주문했다.

신중일 기자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금강계단 제124회 보살계 수계산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오래된 제124회 금정총림 범어사 보살계를 봉행합니다.
팔만사천 법문의 실천 요체인 범망경 보살계는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에게 전하신 심지법문으로 불교의 수많은 수행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보살계를 받아서 생사해탈의 큰 인연 공덕으로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2568(2024)년 4월 22일~23일
(음3월 14일~15일) 오전 10시
장 소 | 범어사 금강계단
접 수 처 | 범어사 원주실(051-508-3636)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전계대화상 범석 수불
주 지 산해 정오

3개大 불교동아리 창립…“韓불교 미래 견인”

용주사, 3월 30일 불교동아리 창립법회 봉행

경희대 국제캠 등 대학 3곳
상월결사, 1000만원씩 지원

화성=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한국불교 미래를 견인하기 위한 대학생 전법이 불교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남부지역 3개 대학이 불교동아리를 창립하고 전법을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었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는 3월 30일 경내 관음전에서 ‘불교동아리 창립 및 학생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경희대 국제캠퍼스, 한경국립대 안성캠퍼스,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에서 불교동아리가 창립,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경기남부지역 대학에서 대학생 전법의 결실이 맺어지기까지는 용주사의 역할이 컸다. 2023년 11월 주지 성효 스님과 전법단 지도교수 6명이 1차 간담회를 가졌고, 올해 2월 2차 간담회를 거쳐 3개 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에 이르게 됐다. 경희대 국제캠퍼스 불교동아리 지도법사는 봉녕사 승가대학 학감 도연 스님, 지도교수는 이효인 연극영화과 교수다. 엄상철 동아리 회장 등 24명이 활동한다. 한경국립대 안성캠퍼스는 안성 운수암 총무원준 스님이 지도법사를, 이득민 동물학과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았다. 회원은 이유진 동아리 회장 등 6명이다.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는 용주사 연수국장 담소 스님이 지도법사로, 박치완 철학과 교수가 지도교수로, 곽재준 동아리 회장 등 24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주지 성효 스님은 “여러분들이 불교동아리에서 활동할 1~3년이라는 기간은 부처님과 맺은 인연 고리가 어떻게 한평생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방향성을 알려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늘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응원했다.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대학 3곳에 창립지원금 각 1000원만과 각 학교 지도교수들에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일감 스님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틀렸다고 느끼는 것에 배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치우치지 않은 중도의 삶에서 행복의 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3월 30일 용주사서 봉행된 불교동아리 창립법회에 동참한 한경국립대 등 경기남부지역 3개 대학 학생들은 캠퍼스 포교를 통해 불교 알리기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불교동아리 창립 주인공들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엄상철 경희대 불교동아리 회장은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하라는 학교 슬로건처럼, 불교화 함께 삶을 전진하겠다”고 했고, 강유진 한경국립대 불교동아리 회장은 “불교를 알리기 위해 캠퍼스 포교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곽재준 한국외국어대 불교동아리 회장도 “코로나19 이전 교내 불교동아리가 있었는데 명맥이 끊겨 고민이 많았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으니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엄상철·제한비 학생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한계 짓지 않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을 이어나가는 대학생 불자로서 모습을 지켜나가도록 정진하겠다”며 “이 법회 인연 공덕으로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길 서원하며, 불교동아리가 나날이 발전하길 불보살님께 발원한다”고 염원했다.

사노위, 제주4·3 추모…“억울한 죽음 더는 없길”

4월 3일 독립공원 4·3추모공간서
희생자 극락왕생 명예회복 발원

76년 전 극한의 이념대립으로 목숨을 잃은 3만여 제주도민의 극락왕생과 그들을 보호하다 화를 입은 제주불교계의 명예회복을 발원하는 추모재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4월 3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마련된 4·3사건 76주년 추모공간에서 4·3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4·3사건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물이 위패를 대신했다.

사노위원이자 4·3사건 희생자유족인 법상 스님은 “저 역시 4·3 당시 할아버지가 화를 입어 지금까지 크나큰 상처로 남아 있다”며 “억울하고 잔혹하게 돌아가신 4·3사건 희생자분들과 스님들이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됐다고는 하지만 미군의 책임이 누락되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우리가 정확하게 미군의 사과를 받고 진실규명을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4 · 3 희생자 추모재 동참자들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제주불교계의 명예회복을 발원했다.

유족 대표 인사는 박진우 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전했다. 박진우 전 위원장은 “제주불교계는 4·3 당시 서북청년단의 폭력으로부터 제주도민들을 보호하다 15명의 스님이 돌아가시고 35개의 사찰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15명의 스님을 해친 가해자들을 밝히고, 다시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말 후 참석 대중들은 스님들과 함께 4·3사건 추모공간을 돌며 제주도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제주불교계의 명예회복을 발원했다.

허상수 4·3유족회 공동대표는 “매년 불교계에서 4·3사건 희생자들을 위해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동자승 단기출가, 올해는 봉선사서

6~7세 어린이 대상…4월 12일까지 접수

불기 2568년 갑진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 홍보대사 역할을 맡는 동자승들이 올해는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에서 활동한다.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시민에게 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할 동자승이 이번에는 봉선사에서 삭발 수계 후 단기출가를 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동자승 단기출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지난해 4년 만에 재개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올해는 조계사가 아닌 봉선사로 출가도량을 옮기면서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선원 개방을 결정했다. 용맹정진하는 스님들의 수행처인 선원을 동자승에게 배려한 것. 동자승 출가가 선원에서 이뤄지는 건 봉선사가 최초다.

호산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동자승이 되는 것은 세세생생 선근이 있어야만 가능한 귀중한 인연”이라며 “동자승들이 부모의 품에서 떨어져 지내는 동안 무럭무럭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원 개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봉선사는 현재 광릉숲을 중심으로 동자승들이 청정한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며 즐거운 출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자승은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화(031-527-1951) 또는 봉선사 홈페이지(www.bongsunsa.net)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 후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윤호섭 기자

보리수아래, 장애 인식개선 ‘작은 토론회’

4월 20일, 전법회관 보리수실
불교계 내부 장애인 인식 살펴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아래가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는 4월 20일 서울 전법회관 보리수실에서 ‘내가 생각하는 장애, 우리가 함께하는 장애’를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토론회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이들과 함께하는 불교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장애인의 신행활동과 불교계 내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나눈다. 장애인이 우리 지역사회 당당한 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정책과 주체적 모범 사례 등을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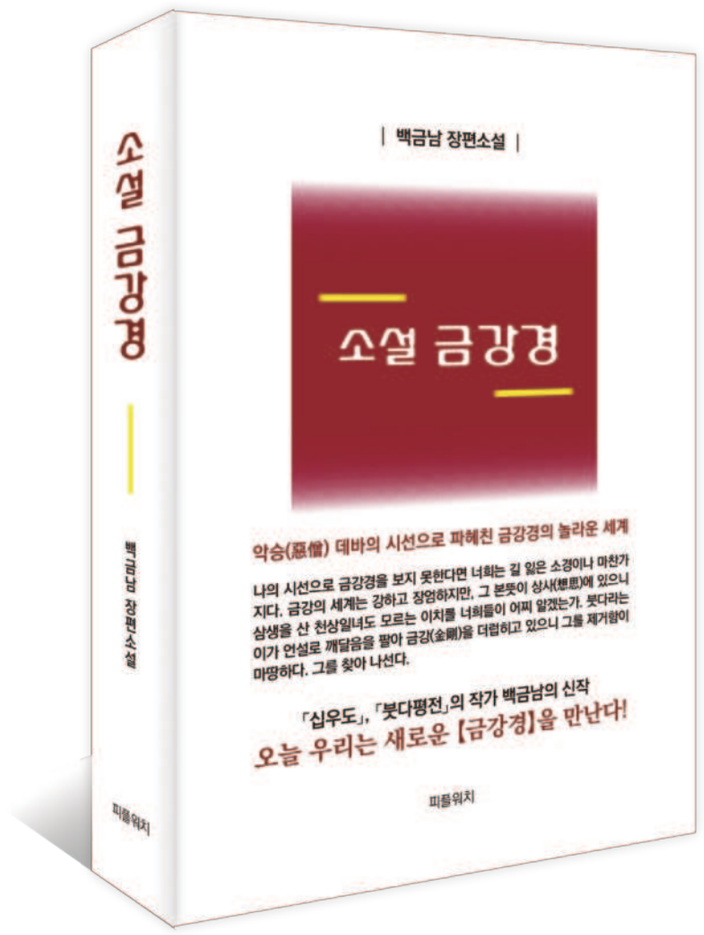
토론회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장애인의 마음알기’에서는 고명숙·이순애·홍현승·성희철 씨 등 보리수아래 회원들이 나서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들려준다.

두 번째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는 이계경 조계종 전문포교사가 ‘장애인과 함께하며 느낀 점들’을, 조남선 계간 국제문단 발행인이 ‘문학활동을 통해 본 장애인의 역량’을, 임은호 현대불교신문 기자가 ‘불교언론과 장애불자들의 포교활동’을, 김귀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복지지원자로서 보는 장애활동의 가능성’을 발표한다.

세 번째 ‘희망을 만들며’에서는 이상복 전 파주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장이 ‘내가 바라는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조계종 장애인전법단장 해성 스님이 ‘불교계의 바른 장애인 인식을 위한 스님의 역할’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 ‘나도 한마디’에서는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최명숙 대표는 “이번 작은 토론회는 불교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실질적으로 어떠한지를 들어보고 장애인들이 사회 변화 속에서 대중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등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다. 이 자리가 장애인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보리수아래 사무국(02-959-2611) 또는 홈페이지(https://cafe.naver.com/borisu0708)로 문의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소설 금강경

깨달음을 버리고 벼락처럼 깨침을 얻는다!

「십우도」, 「붓다평전」의 작가 백금남의 신작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금강경】을 만난다!

악승(惡僧) 데바의 시선으로 파헤친 금강경의 놀라운 세계

나의 시선으로 금강경을 보지 못한다면 너희는 길 잃은 소경이나 마찬가지다. 금강의 세계는 강하고 장엄하지만, 그 본뜻이 상사(想思)에 있으니 삼생을 산 천상일녀도 모르는 이치를 너희들이 어찌 알겠는가. 붓다라는 이가 언설로 깨달음을 팔아 금강(金剛)을 더럽히고 있으니 그를 제거함이 마땅하다. 그를 찾아 나선다.

저자 백금남 | 값 18,000원

피플워치 02-352-3861

천하의 지식인이여,
내게 와서 물으라
– 탄허 큰스님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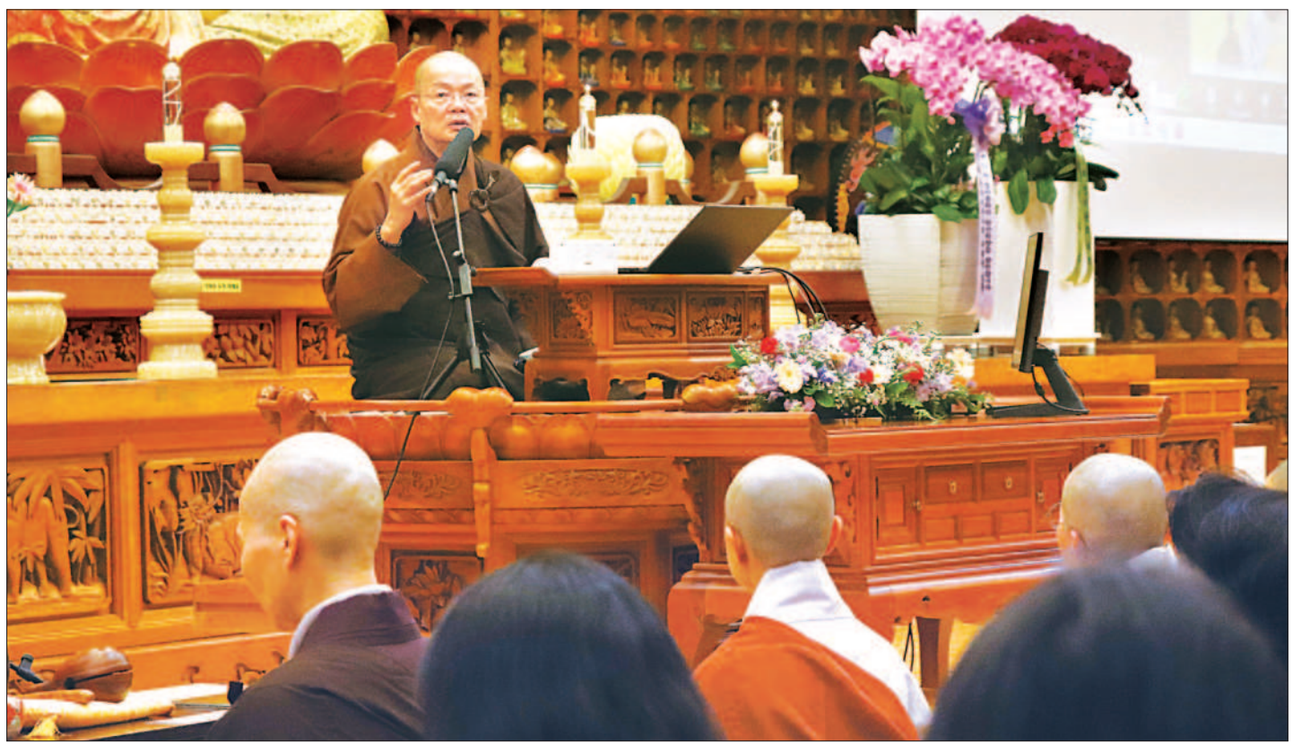


백금남 지음

신국판 533쪽 | 피플워치 | 값 26,000원

화엄학의 종장으로서 특히 예언에 밝았던 탄허당 택성 대종사. 작가는 자신의 종명일까지 예언한 스님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왜 그가 화엄학에 그토록 몰두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수많은 그의 예언들... 그것이 허명에 의한 술(術)의 경지가 아니라 도(道)의 경지에 입각한 것임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오늘도 묻는다. 스님, 자신의 종명일까지 예언하셨다면서요? 종명일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갈 해, 갈 날, 갈 시’까지 예언하셨다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역사의 질곡마다 해왔던 예언들.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월악산에 달이 떠오르고, 젊은 지도자는 성냥갑 놀이를 할 터인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예언에 초점을 맞추리라. 그것이 세상의 인심이다. 혼돈의 시대, 당위의 미래학을 펼칠 수밖에 없는 화엄승의 희망을 이해하기 어려울 테지만 그러나 그 인심 속에 희망이 있다. 바람 속의 꽃이 역사기 되듯이 화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리라는 희망이 있다.


영화 선사가 대중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문 시작 전 위앙종의 전통에 따라 30분의 선명상 실참을 하고 있다.


명상에 집중하는 대중의 모습.


이선미 씨가 영화 선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좋은 질문입니다”…묻고 답하니 선명상 궁금증 해소

방한 영화 선사 3월 30일 첫 일정
비구니회관 선명상 다르마톡 법문
뚫 실천 강조…질의응답으로 소통
4월 중순까지 전국서 선명상 지도

이민우 기자 alsdn285@naver.com

“삼독을 제거하고 더 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평소 수행에 대한 궁금증을 물으니 “아주 좋은 질문”이라며 스님이 곧장 답을 전했다. 불자들은 자신의 수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 귀를 열어 스님의 조언에 집중한다.

불자로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과 법문 내용에서 느꼈던 궁금증이 물음표로 전달되면 스님이 그것을 느낌표로 바꾸어 되돌려준다. 답을 얻은 불자는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인다. 이 모든 과정은 해외의 사찰에도 생중계로 전달됐다. 한국 사찰의 일반적인 법문 형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불자들은 자신의 궁금증을 솔직히 물으며 법을 청했다.

3월 30일 서울 강남 전국비구니회관 3층 만불전에서 질의응답 중심의 다르마톡 법문이 진행됐다. 법사는 미국 위앙종의 영화 선사. 1995년 출가해 20여 년간 전 세계의 수행자들에게 위앙종의 가르침을 전해온 영화 선사가 지난 3월 28일 방한해 첫 일정으로 80여 명의 재가수행자들을 만났다.

한국불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위앙종(潙仰宗)은 중국 선불교의 선종오가 중 하나로 위산영우(潙山靈祐, 771~853)와 앙산 혜적(仰山慧寂, 815~891)이라는 두 선승을 시조로 성립했으나, 송나라 때 임제종에 흡수됐다. 근현대에 이르러 허운(虛雲, 1840~1959) 대사로 인해 그 맥이 되살아난 위앙종은 선화(宣化, 1918~1995) 상인에 의해 미국으로 전해졌다.

법문에 앞서 위앙종의 전통에 따라 30분의 명상이 이뤄졌다. 수분 전까지 들떠있던 대중은 목탁소리가 울리는 동시에 명상에 빠져들었다. 명상이 끝난 이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을 도는 행선도 이어졌다.

영화 선사는 법문에서 선(善)의 실천을 강조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삼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함으로써 복을 쌓아야 한다는 영화 선사의 법문은 수행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영화 선사는 “선을 행동으로 옮겨 삼독을 줄여나가면 자연스럽게 1단계 선(禪)에 도달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다”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의 선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진전’이다. 우리의 역할은 바로 사람들이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30분 가량의 법문이 끝나고 영화 선사는 수행자들에게 어떤 질문이든 던지라고 말했다. 묻고 답하는 법문이 익숙하지 않았던 수행자들은 선뜻 손을 들지 못했다. 하지만 한 수행자가 손을 들고 “삼독을 제거하고 더 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손이 올라왔다.

영화 선사는 모든 질문을 “좋은 질문”이라고 격려하며 답문을 이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했다. 선 수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삼독은 자연스럽게 제거된다는 것. 하지만 자신의 삼독을 제거하는 것만큼 타인의 삼독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영화 선사의 답에 질문자는 더 선해지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을 중학교 교사라고 밝힌 이선미 씨 역시 평소에 고민이 많았다는 듯 질문을 던졌다. 이선미 씨는 “교사로서 항상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삼독을 제거하지 못한 채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독을 전파하는 것이란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며 삼독을 제거하지 못하면 어떤 행동이든 독을 퍼뜨리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물었다.

영화 선사는 “타인에게 독을 퍼뜨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선한 사람”이라며 “선을 행하고 복을 쌓다 보면 타인에게 퍼뜨리는 독을 줄여나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또한 “교사인 만큼 아이들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은 평소 수행하며 들었던 의문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바란 법회 참석자는 “평소 명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때마침 명상으로 유명한 영화 선사가 방한했다고 해서 처음 비구니회관을 찾았다”며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화 선사는 3월 31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정토법문을 진행했으며, 4월 5일부터 사흘간 제주 원명선원을 찾아 수행자들에게 선칠을 지도했다.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는 4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서울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선명상법회, 화엄경 강설, 정토법회, 유마경 강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화 선사는 2018년 처음 한국을 찾은 이후 청주 보산사와 분당 보라선원을 설립해 한국의 출재가자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영화 선사 다르마톡 주요 질의응답

Q. 탐진치를 제거하고 더 선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당신이 진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삼독이 줄어든다. 우리의 목표는 진전하는 방법과 기술을 전해 사람들이 더 빠르게 진전하도록 돕는 것이다.

요즘 불교는 그런 정신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 우리 세대가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그것을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할 책임감을 잃었기 때문이다. 스승들이 우리를 가르친 것은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음세대에게 전해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선 수행을 계속하다보면 삼독은 자연스레 제거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의 삼독을 제거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삼독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도 자신의 삼독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더 선해지는 방법이다.

Q. 수행을 했을 때 본인이 초선에 도달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나 역시 초선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동료 수행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도 그 방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스승들의 책을 찾아 읽었지만 초선의 대단함과 이점만이 쓰여있었을 뿐 어떻게 초선에 도달하는지는 쓰여있지 않았다. 어떻게 초선에 진입하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초선에 도달한 사람들도 자신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단지 선을 수행해 복을 쌓은 것뿐이다. 우리 역시 초선에 진입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 복을 쌓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을 수행해 복을 쌓다보면 자연스럽게 초선에 진입할 기회를 얻게 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Q. 평소 명상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을 계기로 명상을 평생 실천하고자 마음먹었다. 어떤 마음을 가지면 이에 굴하지 않고 명상을 평생 할 수 있습니까?

A. 훈련을 더 받아야 한다. 훈련을 통해 명상을 습관화하고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선도 그만큼 중요하다. 선을 행하는 것을 즐겨라. 명상을 습관화하고 선을 재미있게 행하는 것은 당신이 더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줄 것이다.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


원불전


법당특별장엄등

장엄등 절찬 판매


만월등


팔각등

장엄등


도량장엄등


인 등


위 패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www.boryeon.com 시공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Instagram NAVER 블로그 검색 : 보련기획

“온누리에 부처님 법음 전해지길”

천태종 부산 광명사, 3월 29일
미륵대범종각 낙성 · 타종법회
신응수 대목장이 전통양식으로
범종은 원광식 주철장이 주조
총 3700관, 중량 14톤 규모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태종 종정예하 도용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범종을 타종하고 있다.

국태민안과 세계평화를 위해 조성한 광명사 미륵대범종이 모습을 드러내 청정 법음을 온누리에 펼쳤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 스님)는 3월 29일 경내 미륵대범종각 앞에서 국태민안·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미륵대범종각 낙성 및 타종법회’를 봉행했다. 광명사 미륵대범종각과 범종은 천태법화 사상과 국태민안, 세계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지상 1층 규모에 62.8㎡ 부지, 전통목구조 주심포 양식이다. 육송목재를 사용해 전통기와 조립 방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신응수 대목장이 도편수를 맡았다.

범종은 성종사 원광식 주철장이 전통 밀납주조 방식으로 불사했다. 총 3700관, 중량 14톤, 높이 3.2m, 직경 1.9m 규모이며, 성종사 자체 음향분석결과 범종의 1차 기본주파수는 86Hz, 2차 주파수는 193Hz다. 분석에 따르면 신라 에밀레종의 64Hz, 168Hz보다 높다. 맥놀이 주기 역시 20초간 4.5초로 나타났다. 범종 표면에는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미륵불을 동남서북으로 새겨져 있다.

미륵대범종각 낙성과 타종법회는 종정예하 도용 스님을 증명으로 진행됐으며 총무원장 덕수 스님, 원로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의장 세운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재윤 금정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천태종 종정예하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렁찬 청정 범음 온누리에 가득하여 용화정토 열어가는 원력으로 이어지니 도솔천궁 미륵불이 도량에 현신하사 일체중생 이고득락 복밭이 펼쳐진다”며 “사부대중의 지극한 정성으로 성취된 대작불사에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의 길로 나아가자”고 설법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치사에서 “범종과 법고를 비롯한 불전 사물은 불보살님을 예경하고 그 공덕으로 일체중생을 해탈하게 하는 중요한 법구”라며 “범종각을 건립하여 사물을 조성해 모시는 불사는 일체중생에 대한 무량자비다. 오탁악세와 무명번뇌의 중생을 해탈의 문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범종소리에 실어 국민화합과 평화적 남북통일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범종 주조에 동참한 각 분야 장인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광명사 미륵대범종의 장엄한 법음이 금정산 맑은 기운과 어우러져 우주 법계로 퍼져 나아가면 시대의 혼란이 극복되고 국민화합과 평화적의 남북통일이 성취된다. 아울러 삼계육도의 모든 중생이 해탈하는 공덕을 입게 될 것”이라고 봉행사를 했다.

원묵당 도오 선사 영결식 엄수

세수 74세 · 법랍 50세로 원적
평생 정진하며 100안거 성만



선방의 적막처럼 고요히 수좌의 삶을 살아온 수행자의 사표 ‘원묵당 도오 선사’가 열반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원묵당 도오 선사 영결식’을 4월 3일 경내 암자 극락암에서 엄수했다.〈사진〉 도오 선사는 극락암 호국선원 선원장으로 수행을 지도하며 묵묵히 수좌의 삶을 살아왔다. 선사는 지난 1일 오후 3시 통도사 극락암에서 세수 74세, 법랍 50세로 원적에 들었다.

영결식에는 원명 지종 대종사, 원산 도명 대종사, 법산 경일 대종사, 시명 대종사, 요산 지안 대종사,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극락암 감원 관행 스님, 정수·종현·반산·지선·혜원·명본 스님을 비롯해 사중스님들과 도오 스님의 속가 친족, 신행단체 회장 및 재가불자들이 참석했다.

경봉문도회장 원산 스님은 영결사에서 “생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며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도오 선사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50년 동안 선원에서 화두에 전념 수행해왔다. 말없이 정진하며 옴이 없이 오셨다가 감이 없이 가셨다”고 추모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일오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원묵당 도오 선사시여! 따뜻한 봄날에 꽃잎은 하늘거리고, 영축산 새들도 노래해 극락도량을 장엄하는데 어디를 가셨는가”라고 추모한 뒤 “오늘 비록 꽃길 따라 화장 장엄세계 이르셨을지라도 속히 발길을 돌려 사바의 눈 어두운 중생들을 제도하소서”라고 도오 스님의 원적을 안타까워했다.

극락암 감원 관행 스님은 “우중으로 불편한 가운데서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영결식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도오 선사는 평소 일상생활 속에 수행 정진으로 수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 모습을 따라 저희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도오 선사의 49재는 통도사 극락암에서 4월 7일 오전 10시 초재를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봉행되며, 막재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봉행될 예정이다.

원묵당 도오 선사는 1950년 경북 상주에서 5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스님은 1973년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4년 해인사 퇴설당 안거를 시작으로 용화사, 봉암사, 송광사, 쌍계사, 칠불암, 동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100안거를 성만했다. 도오 선사는 경봉 스님의 수행 가풍을 이어 지난 2004년부터 극락호국선원에서 수좌들을 제접하며 정진해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9개 대학 지원…“소중한 인연”

대불련 부산지부와 연합법회
지부 후원금 · 사무공간 지원
(사)상월결사 지원금 약정도
대불련 동문회도 지원 약속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오 스님 등 범어사 스님들과 대불련 부산지부 각 대학생, 지도교수 등이 연합법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소속 대학생들이 불교와의 인연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3월 30일 경내 보제루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를 비롯한 부산불교계는 연합법회에서 대학생불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각 대학 지도법사 및 지도교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각 대학별로 한 학기당 500만원, 1년 동안 총 1000만원의 (사)상월결사 지원금을 약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범어사는 대불련 부산지부에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숙희 불자는 1억원 상당의 사무공간 비용을 지원했다. 대불련 부산동문회도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약속했다.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는 안도 스님이 임명됐다. 각 대학별 지도법사는 부산대 정수 스님, 인제대 능서 스님, 동명대 원순 스님, 동아대 성종 스님, 부경대 무무 스님, 부산교육대 범해 스님, 동의대 효산 스님, 해양대 담화림 스님, 대동대 동선 스님이다. 지도교수는 부산대 채진영 교수, 동명대 장재진 교수, 동아대 안영희 교수, 대동대 서정 교수, 부경대 권성열 교수, 인제대 김철수 교수, 해양대 설동일 교수, 부산교대 이유리 교수, 동의대 김종오 교수가 위촉됐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부처님과의 인연은 가장 크고 소중하다”며 “소중한 인연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대불련 부산지부가 큰 변화 동력을 얻었다”며 “앞으로 발전을 위해 화합을 강조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불교를 소개해 신심을 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법회에는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 주지 정오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남전 스님,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안도 스님을 비롯해 각 대학별 지도법사와 주현우 대불련 중앙회장, 김은정 대불련 부산지부장, 전정순 대불련 부산동문회장 및 동문회원이 참석했다. 또 권성열 부산교수불자연합회장과 각 대학별 지도교수,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 이숙희 불자, 9개 대학 대불련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창립 50주년 수정문도회 문중총회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문도회 기금 500만원 희사



조계종 비구니 수정문도회(회장 선철 스님)가 3월 29일 부산 쿠무다지하 1층 콘서트홀에서 ‘제50차 대한불교조계종 수정문도회 문중총회’를 봉행했다.〈사진〉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수정문도회의 문중총회에는 고문 선주 스님, 회장 선철 스님, 수석부회장 성정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등 문도스님 30여 명이 참석했다. 문중총회에서 문도스님들은 회칙 개정안과 조직 개편안 등 문도의 발전과 화합을 주제로 논의했다. 특히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문도회 발전 기금으로 500만원을 희사했다.

광용 스님은 “작은 기금이지만 문도회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문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많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총회가 끝난 뒤에는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이 준비한 작은 공연이 진행됐으며, 봄과 어울리는 클래식 노래로 구성된 공연이 펼쳐져 스님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목종 스님 유발상좌 42명 수계

사단법인 미소원 회원 대상
“계 받들어 수행정진 매진”



사단법인 미소원 회원 42명이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의 유발상좌로 거듭났다.

대광명사(주지 목종 스님)는 3월 31일 대광명전에서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사)미소원 유발상좌 수계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수계식은 목종 스님과 장유정 (사)미소원 이사장의 인연으로 시작됐다.

목종 스님은 수계식에서 “삼귀의는 매순간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 판단하고 목숨 바쳐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이다. 오계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 가르침이며 판단과 분별의 지침으로 삼는 안내도와 같은 것”이라며 “잘 지키고 행해 수승한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작가는 유발상좌를 대표해 “저희들은 지성과 성심을 바쳐 계법을 받들어 행하고 오계를 부처님의 대자대비 광명임을 가슴 깊이 받아 일심으로 수행정진할 것”이라고 발원문을 낭독했다.

대광명사는 이어 유발상좌의 인연을 맺기까지 도움을 준 장유정 이사장에게 특별상을 시상했다. 장 이사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생명나눔실천 및 부산불교환경연대 등 주요 불교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장 이사장은 “이 만남은 일대사 인연이다. 수행 전법하는 가운데 어려움은 망망대해에서 풍광을 만난 것과 같다. 이 인연은 어둡고 힘든 가운데 보이는 밝은 등불을 만난 것과 같다”며 “스님 말씀처럼 계를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소원은 제자로 인연을 맺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하며 대광명사 유튜브 ‘불교바로보기TV’에 후원금 1080만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고산당 혜원 율사 공적비 제막

혜원정사 창건기념 의미 담아
“고산 스님의 숨결 스민 도량”



고산당 혜원 율사의 열반 3주기를 맞아 공덕비 제막 및 사리탑 봉안식이 봉행됐다.

혜원정사(주지 원허 스님)는 3월 30일 경내에서 ‘묘봉산 고산당 혜원율사 혜원정사창건기 및 공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혜원정사 창건기 및 공적비는 경내 해수관음보살상 오른편에 위치하며, 바로 앞에 고산 스님의 사리 3과와 다라니를 봉안한 사리탑을 불사했다. 비문에는 고산 스님의 행장과 공적 그리고 유지가 담겼으며 비문은 전계제자 덕민 스님(불국사 승가대학장)이 직접 작성했다.

제막식에는 기장 보림사 조실 보광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 고산문도회 문장 영담 스님,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고산문도 스님들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덕민 스님은 비문을 통해 “큰스님의 불식촌음의 유교(遺敎)를 철두철미하게 실천해 큰스님의 법은(法恩)보답한다면 해마다 혜원의 묵은 대나무 밭에 새로운 큰 죽순이 쑥쑥 올라올 것이고 해마다 새로운 꽃송이가 묵은 가지에서 화려하게 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문도를 대표해 영담 스님은 “이곳에 큰스님의 유지가 전해지기까지 노력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히다. 앞으로도 도량을 잘 가꿔주시고 큰스님의 유지인 불식촌음을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허 스님은 “제막식을 준비하면서 큰스님이 생각나 마음이 먹먹한 시간이었다”며 “큰스님의 뜻을 잊지 않고 포교하고 정진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임진왜란 호국영령의 평안 기원”

마이산 자비암 자관 스님
제21회 호국 위령재 봉행



임진왜란 당시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대재가 봉행됐다.

동래읍성 아래에 위치한 마안산 자비암(주지 자관 스님)은 3월 31일 경내에서 ‘제21회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했다.〈사진〉 위령재는 시련을 시작으로 신중작법, 상주권공, 작법무, 축원, 시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은 “이곳 동래성은 임진왜란 당시 성안에 있던 군사들과 백성들이 끝까지 왜군에 저항한 호국도량이다. 여기엔 돌아가신 3500여 명의 영령들이 있다. 오늘 위령재를 봉행하면서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호국영령들께서 편안해지시고 아울러 이 지역주민들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동래읍성 근처에 있던 많은 사찰들이 개발과 문화재 복원 등의 이유로 모두 사라지고 이곳 자비암만 남게 되었다. 그 분들을 위해 이렇게 위령재를 지내드리는게 부처님 제자로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임진왜란 동래성 전투는 1592년 4월 15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에 의해 발발한 전쟁이다. 바다 3면이 포위되어 동래부사 송상현 장군을 비롯한 병사와 백성들은 물론 아녀자들까지 일본군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한 전투로 희생자가 3500여 명에 이른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4월, 울산 태화강은 연등으로 장엄된다

4월 26~28일부터 태화강연등축제
26일 제등행렬, 27일 봉축법요식
전국TOP가요쇼 등 즐길거리 다채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기 2568(2024) 태화강연등축제가 오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태화강 국가정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울산광역시 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가 주최하는 이번 태화강연등축제는 예년보다 더욱 다채로운 행사로서 울산 시민 불자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4월 26일 제등행렬을 시작으로 4월 27일 봉축법요식, 28일 봉축기념 전국TOP10가요쇼 등이 준비돼 있다.

올해 제등행렬은 울산광역시 중구 젊음의 거리에서 시작해 태화루 국가정원으로 이어지며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진 행렬단의 모습을 선보인다. 제등행렬단이 국가정원에 도착하면 국가정원 야외공연장에서 개막 축하공연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4월 26~28일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올해 태화강 연등축제에서는 울산 시민 불사를 위한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27일에는 주요 행사들이 국가정원 곳곳에서 펼쳐진다. 먼저, 울산의 젊은 청년들을 응원하는 붓다 어게인-토크콘서트가 열린다. 토크콘서트는 버닝소다, 멜팅사운드, 먼데이필링 등 인기 밴드의 무대로 꾸며지며 캠프닉 컨셉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부처님 찬탄게송 대회도 다시 불자들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울산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승가 합송 찬탄법석이 마련된다. 승가 합송은 울산지역의 고승 대덕스님들을 법석을 모시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본 행사에서는 사전 접수한 여러 불자가 무대에 올라 경전 속 게송을 읊으며 찬탄과 공경의 마음을 전한다.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법요식도 불교 전통의식으로 진행된다. 태화영산회의 '태화사' 부처님 이운행렬 재현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불단에 모신 후 공양의식과 봉축법요식이 이어진다. 봉축 법요식에는 울산지역 스님들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봉축의 기쁨을 나눈다.

저녁 일몰 시간에는 태화강 달빛산책이 준비됐다. 시민들은 연등을 들고 1시간 코스의 태화강 일대를 함께 걸으며 강물을 등빛으로 수놓는다. 아울러 주최 측에서 다양하고 화려한 장엄등을 설치해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4월 28일에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대미를 장식한다. 봉축기념 전국TOP10가요쇼에는 조항조, 유지나, 박상철 등 인기가수들이 무대를 꾸민다.

쓰레기 없는 에코축제를 지향하는 것도 태화강 연등축제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다도 체험에는 천마도예의 숲과 태화강 연등축제가 협업한 특별한 찻잔이 활용되며, 협업에 후원하는 참가자에 한해 찻잔이 제공된다. 주최 측은 "개인컵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은 "예년에 비해 다채로운 행사들로 채워진 불기 2568(2024) 태화강연등축제에서는 불교문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시민, 불자들이 모두 함께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는 대화합과 찬탄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붕선교종 종정 '운악 대륜 대종사' 취임

4월 3일 총본산 일붕선원서 취임법회 봉행

대륜 대종사 "대통합 노력"
전법 포교 중요성 취임 일성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4월 3일 총본산 서울 일붕선원에서 제7세 종정 운악 대륜 대종사〈사진〉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대륜 대종사는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단을 창종하신 일붕존자와 먼저 입적하신 대종사 스님들, 그리고 종단을 원만하게 이끌어 온 중진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있다. 한국불교 주역으로서 불신과 갈등, 대립과 독선을 털어버리고 화합된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자"고 당부했다.

대륜 대종사는 1960년 파주 법륜사 현암화상을 은사로 정두석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으며, 현암화상으로부터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라는 가르침과 운악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심청전 발상지' 곡성 관음사 대웅전 낙성

삼존불 점안법회도 함께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옛이야기 '심청전'의 발상지인 전남 곡성 관음사(주지 덕운 스님)에서 '대웅전 낙성 및 삼존불 점안법회'가 4월 2일 봉행됐다.〈사진〉

점안식에는 화엄사 회주 종열 스님,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제19교구 화엄사 본말사 주지 스님들과 윤영규 곡성군의장, 군의원, 탤런트 송지효 등이 참여해 축하했다.

이날 낙성한 대웅전은 건축면적 101㎡(30.5평)에 내9포 외7포로 전면 3칸의 팔작지붕 전통양식이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 지장, 관음보살 삼존불과 후불탱화, 104위의 신중탱화가 모셔져 이날 점안을 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신임 덕운 스님의 원력으로 지역의 중심도량이자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관음사는 이날 전 주지 대요 스님과 박무애심 신도에게 불사회향에 헌신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녕 법성사, 법성보살 19주기 추모다례재

4월 1일 대광명전서 봉행
"밝은 사회 · 미래 위해 정진"

관음종 창녕 영축산 법성사를 창건한 덕오당 법성보살 열반 19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관음종 법성사(주지 법명 스님)는 4월 1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덕오당 법성보살 열반 19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다례재에는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법주사 율주 무상 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고봉 스님, 종회의장 혜산 스님, 교육원장 도선 스님, 호법원장 경원 스님, 포교원장 도현 스님, 총무원 부원장 도각 스님, 총무부장 홍경 스님, 사서실장 법룡 스님, 총무원 소임자 스님, 각 사찰 주지스님, 최윤섭 관음종 중앙신도회장, 고복순 백운사 반야회회장, 법성사 신도회 임원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은 "누구라도 불성이라는 구슬을 가지고 있어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며 "법성보살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구슬을 하나씩 주었다. 법성보살의 추모다례재를 맞아 자신에게 그 구슬의 진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법성보살의 유지를 받들어 밝은 사회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 증심사, '무등산 산신재' 봉행

3월 30일, 300여 명 동참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가 3월 30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무등산 증심사 산신재'를 봉행했다.〈사진〉

행사에는 주지 중현 스님, 선재사 주지 진훤 스님과 증심사 대중인 덕인 스님, 종문 스님, 덕성 스님, 동은 스님을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문선화, 이지애, 김현숙 동구의원과 이안수 동구청불자회장 등 신도 300여 명이 동참했다.

증심사를 포함해 무등산은 오래전부터 산신신앙이 존재해 왔다. 특히 증심사에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서석산신지위' 바위에 새겨져 있는 위패가 있어 오랜기간 산신기도와 산신신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증심사는 천 년 넘게 온갖 재앙으로부터 증심사를 지켜준 호법산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3년부터 산신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과 헌화의식에 이어 2부 산신불공이 진행됐다.

중현 스님은 "광주시민들은 무등산을 아끼는 마음을 넘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힘들고 지칠 때 무등산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무등산의 품 안에서 위로와 치유를 받는다"며 "오늘날 무등산 덕분에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상시교육 입재

매주 화요일마다 년중 진행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 스님)가 4월 2일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전수관에서 상시교육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입재식에서 영산 스님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영산작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왔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예수재, 수륙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며 "올해부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년 중 상시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모두가 간절한 원력을 가지고 교육에 역량을 집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의 상시교육은 매주 화요일마다 3시간씩 불교전통의식인 생전예수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성흥사, 이웃에 쌀 기탁

군산 성흥사가 군산시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비의 쌀 100포를 기탁했다.

성흥사(주지 보위 스님)는 4월 2일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자비의 쌀 100포를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사진〉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봄을 맞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쌀을 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흥사 불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성흥사에서 기탁한 백미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결식 위험이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총신도회 국수 나눔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총신도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점심식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선운사 총신도회(회장 정찬원)는 4월 3일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관장 해봉 스님)에서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500여 명에게 국수를 대접했다.〈사진〉

정찬원 선운사 신도회 회장은 "선운사 신도회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자비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관장 해봉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국수를 대접해주신 선운사 신도회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환경연대, 쌀 전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해청 스님)는 3월 28일 광주 양림동 나무숲센터 3층 그린담마홀에서 '제17회 광주전남지역 공익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70명에게 각 40kg씩 총 2800kg을 전달했다.

해청 스님은 "불교에서는 '부처님 자비심을 나누자'라고 말한다. 이는 함께 나누기, 기뻐하고, 행복하자는 뜻"이라며 "쌀 보시에 동참해준 사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한 자비의 쌀은 광덕사, 능가사, 동원사, 문빈정사, 선덕사, 신광사, 약사암, 연화사, 원각사, 원효사, 정토사, 천룡사, 향일암 등 광주전남지역 사찰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화사, 칠존석불 문화제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 스님)는 3월 29일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대한제국 마지막 원찰 용화사 칠존석불에 기원하다'를 주제로 문화제를 열었다.〈사진〉

2024년 전통산사문화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문화제는 바가바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대전가온무용단 대표 조현화씨의 관음무, 비보잉 댄스, 대금연주 등으로 진행됐다.

청주 용화사는 1902년 순빈엄비의 명에 의해 청주지주 이희복이 창건한 대한제국의 마지막 원찰로 잘 알려져 있다. 본래는 고려 사뇌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1993년 무심천 제방 확장공사 당시 용화사 주변에서 400여점의 사뇌사 유물들이 발견된 바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진불선원 선불교대 체육대회

창원 진불선원 선불교대학(학장 무아 스님)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가 3월 31일 창원 유목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사진〉 선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주최·주관하고 신도회와 거사림, 불심동행회가 후원한 이번 한마음체육대회는 15기 신입생 환영식을 겸해 열렸다.

이날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한 200여 동문은 각 기수별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6개팀을 구성해 몸풀기 체조, 훌라우프 링 전달게임, OX퀴즈, 진불가수왕 선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무아 스님은 "도반들과 소통하고 밝은 마음으로 자비보살행을 실천하는 삶, 나아가 모두가 참 부처로 깨어나는 삶을 가꾸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美 증오범죄 피해자들 극락왕생하소서”

日 조동종, 반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 합동위령재

치유법회 ‘May We Gather’
백악관도 애도 성명 발표하며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 다짐해

김민재 객원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안티오크 중심가 강둑에 향 내음이 염불 소리와 함께 피어올랐다. 미국 내 반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위령재 및 치유 법회 ‘May We Gather’가 애틀랜타 한인 스파 총격 참사 3주기를 맞아 지난 3월 16일 안티오크 엘캄파닐 극장에서 봉행됐다.

일본계 미국 통신사 ‘니치 베이 타임즈’는 3월 28일 캘리포니아에서 봉행된 반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 합동위령재 및 치유 법회 소식을 전했다.

일본 조동종 던컨 윌리엄스 스님의 주최로 열린 이날 위령재에는 각국 스님과 아시아계 미국인 불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그들은 자비의 화신인 천수관음을 모시고 예불을 올렸다. 예불은 팔리어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모국어가 울려 퍼졌다. 불단에는 증오범죄 희생자들의 위패가 놓였다.

애틀랜타 한인 스파 총격 참사는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이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다. 8명이 숨졌으며 희생자 중 6명은 한국인 여성이었다. 범인은 “스파 여직원은 유혹의 원천이며 해악이기 때문에 살해했다”고 밝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윌리엄스 스님은 “애틀랜타 총격 참사는 1876년 안티오크 차이나타운 방화 사건과 유사한 반아시안 증오범죄”라면서 “법회 봉행지 안티오크에 드리워진 반아시안 증오정서의 그늘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를 따라 이주한 수천 명의 중국인 이민자를 향한 반중 정서와 폭력이 고조되며 인종에 근거하여 중국인 배제법이 발동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안티오크는 중국 이민자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공개 사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증오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정계에 증오범죄 대응 촉구하고 증오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목표한다”고 법회 취지를 밝혔다.


합동위령제 동참자들이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진출처=AP통신

아시아계 미국인 차별, 증오 외국인 혐오 사건을 추적하는 사회 단체 ‘스톱 AAPI 헤이트’ 창립자 러셀 증은 “‘May We Gather’의 실천 불교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전통을 되찾고 증오범죄로 인한 도덕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에서는 애도 성명을 내고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다짐했다.

하비어 베세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3년 전, 애틀랜타에서 고귀한 생명이 무분별한 총격에 쓰러졌다”면서 “우리나라에 급증하는 반아시안 정서에 충격을 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과 친지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애틀랜타를 비롯한 전국의 아시아계 미국인의 슬픔도 함께 나누겠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 불교 사원 폭격…8명 사망

불교계 소수민족 대거 피해

미얀마 군부 공군이 한 불교 수도원을 폭격해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카렌국민연합(KNU) 제5여단의 소식통에 따르면 군부 공군은 카렌주 파푼 타운에서 발생한 격전을 피해 도망친 민간인 카렌족들을 보호하던 뮤마 쉬 크야웅 사원을 3월 31일 오후 1시께 폭격했다. 카렌족은 미얀마 동·남 지역에 거주하는 불교계 소수민족이다.

KNU와 동맹군은 파푼 지역 인근에서 군부와 함께 약 2주간 격전을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달 30일께 KNU와 동맹군이 군부 대대와 무기고를 점령했고, 이에 군부는 크야웅 사원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다.

앞서 KNU는 주민들에게 사원으로 모인 후 대피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KNU는 지난달 25일부터 파푼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난 1일 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사원을 떠나지 않은 채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월 31일 폭격 당한 사원에서 부상 당한 주민을 스님과 민간인이 구조하고 있다. 사진출처=The Irrawaddy

소식통은 “피해자들은 수도원에 대피한 주민들로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다”며 “상황을 기다리고 지켜보던 중 수도원이 폭격당할 때 공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KNU 제5여단은 지난달 19일께 파푼 남쪽에 있는 군부 통신망 4곳을 격투했다. 이후 군부는 매일 KNU에 대한 공습을 펼치며 보복 대응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美 하버드대, 불교 문명 심포지엄 성료

3월 23일, 학내 아시아센터서
‘간다라 불교 예술’ 등 발제

미국 하버드대학이 불교학 연구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

텍사스주 지역 언론인 KET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하버드대학은 3월 23일 학내 아시아센터에서 불교 문명과 관련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불교 역사 탐구 및 문화 유산 홍보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 ‘WAKSAW-Uddiyana’과 하버드대학 아시아센터, 불교계 국제 비영리 단체인 우든피스 재단(Woodenfish Foundation)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하버드-옌칭 연구소의 명예 소장인 제임스 로브슨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아시아 문명 연구소의 가니 워 라만(Ghani-ur-Rahman) 박사가 ‘간다라 불교 예술: 기원, 주제 및 상징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드렉셀 대학 피아 브란카치오 교수의 ‘간다라 스투파의 건축 재방문: 유물, 왕권, 그리고 헌신’ △워터루 윌프리드 로리어 대학 제이슨 닐리스 교수의 ‘불교적 물질 실천의 지역적 차원’ 주제 발표 등이 진행됐다.


사진출처=KET닷컴

스와트 왕실 가문의 일원인 젠압 아드난 아우랑제브 여사의 개회사로 시작된 오후 세션에서는 베니스 카포스카리(Ca’Foscari) 대학의 루카 M. 올리비에리 교수, 하버드 대학의 채 이레오 박사,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윤요 박사가 발표를 진행했다.

야리 쉔이 WAKSAW 창립자는 “앞으로 불교와 그 역사에 대한 연구와 연구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작업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WAKSAW는 불교 역사와 고고학의 선두주자로서의 명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하버드와 같은 대학들과 의미 있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우리의 공동 미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만 불광산사, 불교 유물 30점 중국에 기증

대만과 중국 문화적 유대
기증 유물 13점 대중에 공개

해외로 불법 반출된 불교 유물을 불광산사가 환수해 중국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지난 3월 25일 중국의 ‘환구시보’와 ‘중국통신사’는 대만 불광산사의 불교 유물 기증 소식을 전했다. 기증 유물은 송나라(960~1279년)부터 청나라(1644~1911년)까지의 유색조형물 총 30점에 이른다. 최근 몇 년간 대만에서 중국으로 기증된 유물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대만 신대학 새미 양 부총장은 “2년 전 대만에서 실시한 사전 감정 결과, 산시성 불교 사원에 있는 일부 불상의 채색 기법, 예술 양식, 재료 및 장인정신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증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중국 베이징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불교 유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출처=중국통신사

기증 유물은 베이징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대만 중국 인문불교협회 문화유적 기증식’을 통해 전달됐다. 기증식에는 대만과 중국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쑹타오 주임은 “기증된 유물은 다채롭고 화려한 중국 역사와 문화의 증거”라며 “중국 문화를 계승하는데 도움을 준 불광산사 관계자들의 환수 노력과 기증 결정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만 중국 인문불교협회 우치양 공동회장은 “해외에 불법 반출된 유물은 불광산사가 환수한 것으로 잃어버린 물건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지만 운명처럼 환지본처 길에 오른다”면서 “불교문화는 중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기증 유물이 문화 보전으로 오래 이어지길 당부한다. 기증 유물은 대만과 중국 불교의 문화적 유대를 통한 높은 차원의 의사소통으로, 양국에 평화와 화합, 단합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기증식은 대만 불광산사의 창건주 고(故) 성운 스님의 뜻을 이어받은 불광산사 청년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성운 스님은 2014년 중국 1급 문화유적인 북제(550~577년) 시대 불상을 중국에 기증한 바 있다.

한편 기증식을 마친 뒤 기증 유물 중 불두(佛頭)와 불상 등 13점이 대중에 공개됐다.

김민재 객원기자

춤으로 그린 49일…죽음 통해 삶 되짚다

국립무용단 신작 공연 '사자의 서'
4월 25~27일 국립극장서 공연
망자의 49일간 여정 단계적 표현
"죽음만이 아닌 삶에 관한 것"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 전속 국립무용단이 4월 25~27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신작 '사자의 서'를 무대에 올린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김종덕 예술감독 및 단장이 취임 후 처음 선보이는 안무작이다.

'사자의 서'는 인간이 죽은 뒤 사후세계에서 헤매지 않고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지침서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대표적인 불교 경전으로 꼽힌다. 국립무용단은 죽음 후 망자가 49일 동안 영혼이 이승에 머물며 느끼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의 과정에서 자기 죽음을 인식하고 저승으로 건너간다는 내용을 그려낼 계획이다.

김종덕 감독은 4월 3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작품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닌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라면서 "삶에 대한 성찰의 시간과 삶을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작품"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그러면서 "서사와 감정을 명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고민했다"며 "죽음이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자,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통로라 보며 인간 생애를 담담하게 관조하려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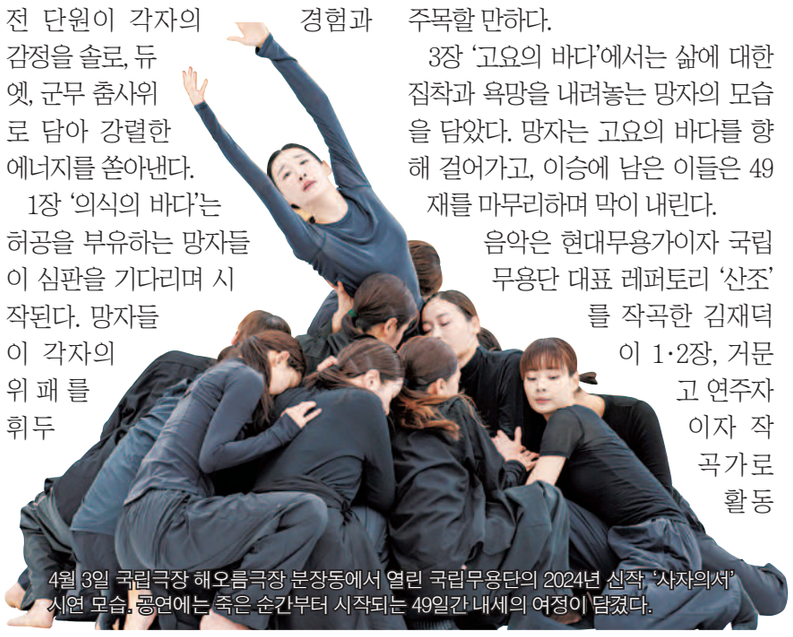
3장으로 구성된 '사자의 서'는 죽음 후 망자가 겪는 49일의 여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국립무용단 50여 명 전 단원이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솔로, 듀엣, 군무 춤사위로 담아 강렬한 에너지를 쏟아낸다.

1장 '의식의 바다'는 허공을 부유하는 망자들이 심판을 기다리며 시작된다. 망자들이 각자의 위패를 휘두르며 만든 소리와 살아있는 자들의 통곡에 맞춰 불안감과 황망함을 춤으로 표현한다.

2장 '상념의 바다'는 망자의 회상이 주를 이룬다. 소년기의 천진난만한 장면, 청년기의 사랑과 이별, 장년기의 결혼 등이 파노라마처럼 무대에서 펼쳐진다. 폭풍같이 몰아치는 일상에서 느낀 기쁨과 슬픔, 회한과 체념 등을 춤으로 표현한다. 장례 절차 중 관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다지는 회다지 모습을 18명의 군무로 재해석한 장면은 주목할 만하다.

3장 '고요의 바다'에서는 삶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는 망자의 모습을 담았다. 망자는 고요의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이승에 남은 이들은 49재를 마무리하며 막이 내린다.

음악은 현대무용가이자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 '산조'를 작곡한 김재덕이 1·2장, 거문고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활동하는 황진아가 3장을 맡았다. 망자의 애절함과 사후세계의 신비함을 담은 음악으로 작품의 몰입을 끌어올리며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4월 3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분장동에서 열린 국립무용단의 2024년 신작 '사자의서' 시연 모습. 공연에는 죽은 순간부터 시작되는 49일간 내세의 여정이 담겼다.

황진아 작곡가는 "지난해 여름부터 작품을 논의했는데 '죽음'이라는 주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에 감정선을 잡는데 심적으로 괴로웠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죽음과 삶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반영, 음악들이 어우러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무대는 제31회 이해랑연극상을 받은 이태섭 무대디자이너가 맡았다. 무대 바닥부터 양쪽 벽까지 20미터에 달하는 삼면이 백색으로 채워지며, 장면에 따라 조각조각 나뉘고 회전하는 무대로 시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공간이 연출될 계획이다.

김종덕 감독은 "죽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고 특히 49재나 3년상 등 이승과 저승을 분리하지 않는 한국 전통의 관점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일 것"이라며 "작품을 통해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원동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극장 홈페이지(www.ntok.go.kr) 참조. 02-2280-4114

열암곡 부처님께 전하는 '뮤직비디오'

퓨전국악밴드 '경성구락부' 남산방아타령 선보여


남산방아타령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염원을 담은 뮤직비디오 '남산방아타령'이 공개됐다. 남산방아타령은 퓨전국악밴드 '경성구락부'가 경주 남산 순례의 감동과 소망을 담아 노래한 작품이다. 남산방아타령은 경기민요인 '자진방아타령'의 일부(4~5월 부분)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염원의 내용으로 개사한 것이다. 이는 샌드아트 '미로수의 꿈'에 이은 조계종 미래본부 '천년을세우다'의 두 번째 미디어 콘텐츠다.

"사월이라 초파일 관등하러 기림사 아가리 범실 잉어등에 등대줄이 떴다. 오월이라 단오일 경주 남산 열암곡에 많은 사람 모두 모여 누워 계신 마애불상 일심으로 세우려니 에-여럿히 한 맘 먹고 얼씨구 지화자 좋다 에라디여."

– 남산방아타령 중에서

경성구락부는 민요를 기반으로 현대음악을 융합한 뉴웨이브 국악을 선보이는 청년 퓨전국악밴드다. 소리꾼인 양진수, 손수빈 등 경성구락부 멤버는 지난해 5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한 경주 기림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면서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지를 순례했다. 이때 느낀 감동과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바로 모셔졌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기림사와 남산 열암곡 등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뮤직비디오는 총 5분 7초 분량으로, 열암곡 마애부처님 관련 부분은 '쇼츠' 영상으로 편집돼 함께 소개됐다. 영상은 조계종 홍보국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윤호섭 기자

명주사고판화박물관, 中 고판화 아카이브 작업

中 국가급 인출 장인 내한
다색판화 100여 점 인출


고판화박물관에서 다색호랑이판화를 인출하고 있는 마시친 중국 국가급 년화 전승인.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30년 동안 수집해 온 전세계 다양한 고판화 작품 가운데 중국 목판의 아카이브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

작업은 중국 국가지정무형문화재급 년화 전승인 마시친 씨와 그의 제자 성급 년화 전승인 쉬샤오이 씨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을 찾으면서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작업은 고판화박물관 소장 중국 년화 목판 1000여 점 가운데 다색 목판을 중심으로 100여 점을 인출, 세상에 다시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년화 다색판화는 한국과 일본의 칼라 판화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판화박물관은 한국, 중국, 일본, 티벳 등 목판 2500여 점의 아카이브 작업을 사진과 인출 장인들의 판화 인출 본 작업을 통해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손색없을 작품이라는 평가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한국 판화는 주로 흑백판화로만 이루어져 있어 다색판화를 인출할 수 있는 장인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위해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으로 이뤄진 원주 세계 고판화문화제를 통해 중국, 일본의 다색판화 전문가를 초청, 다색판화 인출 시연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짧은 시간으로 인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8~19세기 청나라 작품 100여 점의 중국 년화 작품을 다색으로 인출하기 위해 2명의 중국 국가급, 성급 전승인을 초빙해 고판화박물관 소장품 아카이브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다색 판화작품은 내년 11월 중국 북경시 문물국 소속 베이징옌산(北京燕山)출판사에서 발간되는 8권의 전집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구슬주머니, 불교무용대전 참가자 공모

4월 12일까지 개인 및 단체 접수
6월 본선…7월 6일 수상작 선정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대표 이철진)가 제10회 국제 불교무용대전(IBDF) 참가자를 공모한다.

불교무용대전은 불교무용예술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한 행사다.

참가분야는 전통과 창작으로 구분되며 불법승을 소재로 한 무용 작품이라면 장르 및 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전체 작품시간은 단독공연(단체)일 경우 50분 이상, 합동공연일 경우 개인(솔로)은 10분 이상, 단체(듀엣 이상)는 15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불교무용대전 참가신청서 1부와 공연계획서, 출연자와 스텝 명단 1부, 작품사진, 프로필 사진, 작품 영상자료 등이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구슬주머니 홈페이지(https://beadspouch.modoo.at)에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buddhistdance@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영상 및 서류심사에 통과한 단체는 6월 7일~30일 서울 성균소극장에서 본선을 진행한다. 본선 진출작에는 극장 대관 및 기술 지원, 홍보물 제작 및 인쇄 지원, 매체 홍보 지원 등이 제공된다.

결선과 시상식은 7월 6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비롯해 (사)한국춤예술센터장상, (사)한국소극장협회장상 등이 주어진다. 02-3675-3333

임은호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3~4/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영화스님의 선명상	영화 스님	운주사	6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2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7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육조단경	청화 역주	광륜출판사	8	인생수업(잘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법륜/유근택 그림	휴
4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9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5	전심법요완릉록(선전총서8)	황벽희운/정운 강설	운주사	10	테라가타(1)장로게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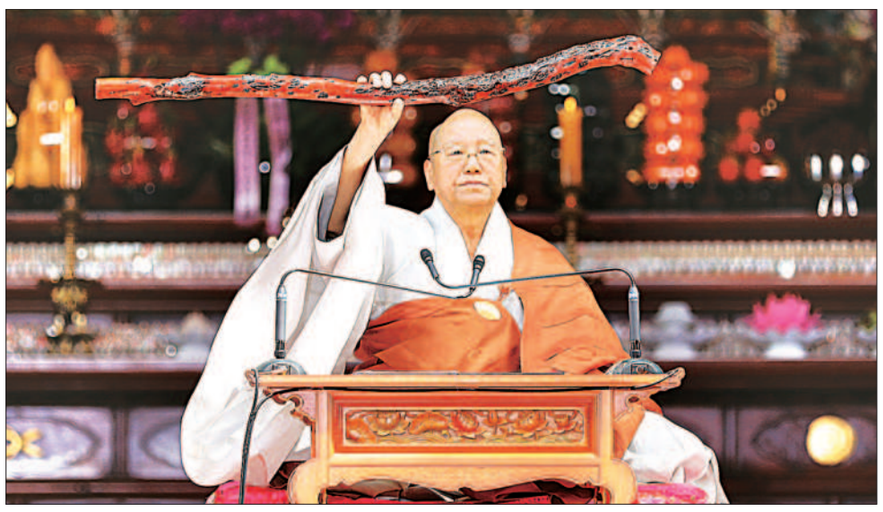
책세상

"마음의 근본고향을 알면 우주가 한몸"



인천안목
진제 스님 법어
매일경제신문사
2만1000원

진제 대종사가 설한 법문들 망라
안거부터 신년 · 봉축 법어 담겨
선수행 통한 '참나 찾기' 강조해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던 당시 진제 대종사가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어떤 스님이 아주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거나 발로 밟지도 않고 오직 입으로만 매달려 있는데 때마침 나무 밑을 지나가던 스님이 물었다.

"달마 스님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답을 하자니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몸이 박살날 것이고, 가만히 있으려니 묻는 이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 어찌할까.

이는 '향엄상수화(香嚴上樹話)'라는 화두로, 중국 당나라 향엄 선사의 법문이기도 하다. 조계종 제13·14대 종정을 지낸 진제 법원 대종사는 이 화두를 스승 향곡 스님에게서 받았다. 진제 대종사는 이 화두를 타파하는데 2년 5개월간 매진했고, 어느날 새벽 홀연하게 타파했다. 그 후 진제 대종사는 33세의 나이에 향곡 스님에게 법을 인가 받아 '경허-혜월-운봉-향곡'으로 전해진 법맥을 이은 선지식이 됐다.

이후 진제 대종사는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조계종 종정으로 대중을 제접하며 정법을 전하는데 매진했다. 지금도 부산 해운정사와 남해 성담사에서 출재가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인천안목〉은 진제 대종사가 종정을 역임할 당시 대중들에게 전한 법문을 망라한 법문집이다. '남진제 북송담'이라 불리며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사인 진제 대종사가 평생 참선을 지도하면서 세상을 향해 던진 깨달음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진제 대종사는 물질 우선의 가치관으로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과 좌절을 주지만 누구도 이 아픔을 보듬고 위무해 주지 못하는 이때, 개개인 스스로가 바깥으로 치닫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자성을 밝히는 법에 대해 가르침을 준다. 간절한 각오로 참나를 찾아서 화두를 참구하면 누구나 진리의 문에 들어가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되며, 평화와 행복은 내면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진제 대종사가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안내하고자 하는 길은, '참성품'에서 더 나아가 '참나'를 찾게 하는 데 있다. 우리는 그 길을 세상사를 등진 '출가자'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흔히 '수행'이라고 부르면서, '고행'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진제 대종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참다운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제 대종사가 설하는 법문에는 간화선을 수행하는 자세부터 화두까지 세세하게 설명돼 있다.

"참선은 앉아서 익히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먼저 좌선을 익히도록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좌복 위에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허리를 곧게 하고 가슴을 편 다음 두 손은 모아서 배꼽 밑에 다 붙입니다. 눈은 2미터 아래에다 화두 생각을 두고 응시하되, 혼침과 망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눈을 뜨고 의심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무르익어지고 나면, 일상생활 속에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산책을 하나, 잠을 자나 오매불망 간절히 화두의심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천번 만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고 오매불망 의심을 쭉 밀고 또 밀고 또 밀 것 같으면 모든 산란심이 일어날 틈이 없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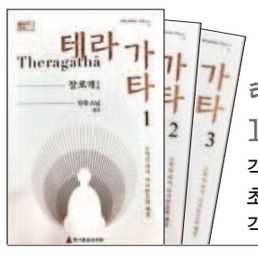
–63쪽 '간화선 수행법' 중

진제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말한다. 눈 밝은 지도자를 만나서 바른 지도를 받아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참구해 나간다면, 누구든지 잃어버렸던 '참나'를 찾게 돼 모두가 영원히 꿈꾸는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참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그런 깨달음의 안목도 진제 대종사는 이렇게 전한다.

"마음의 근본고향을 바로 알아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나'라는 허상이 다 사라져 온 인류가 한 가족이요, 온 우주가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 버립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남보다 더 가지려는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자연과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항상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마음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 밝습니다. 이 마음을 닦아 참나를 깨달으면 그곳에는 시비도 없고, 분별도 없고,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합니다."

–263쪽 '국제무차수륙천대법회 법어' 중

259장로가 설한 1279게송 망라하다



테라가타 1·2·3
각묵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각권 3만5000원

〈테라가타(Theragatha)〉는 초기 불교 경전인 〈쿳다카 니카야(Kuddaka-nikaya)〉 제8경에 속하는 경전이다. 〈테라가타〉는 문자 그대로 '장로들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는 〈장로게경〉으로도 알려져 있다.

부처님의 원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빠알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발원하며 2002년에 설립된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 스님)에서 〈테라가타〉를 전3권으로 번역·출간했다.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이 번역한 〈테라가타〉는 부처님의 직계제자 장로 259명의 게송 1279개를 담고 있다.

초기불전연구원의 〈테라가타〉는 '하나의 모음'부터 '큰 모음'까지 21개의 모음으로 구성돼 있다. 제1권은 해제를 포함해 하나의 모음에 속하는 120개의 게송을 담았으며, 제2권은 둘의 모음부터 열넷의 모음까지 552개의 게송을 담고 있다. 제3권은 열여섯의 모음부터 큰 모음까지 607개의 게송을 담고 있으며 찾아보기와 참고도서 등도 수록됐다.

550~600년경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담마빨라 스님이 지은 〈테라가타 주석서〉를 중시한 것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장로 259명을 분석해 출신과 계급, 출가 동기, 출가 연령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또한 제1권 529개, 제2권 850개, 제3권 748개의 풍부한 주해들도 게송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각묵 스님은 1979년 화엄사 도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를 수지했다. 7년간 제방 선원에서 안거 후 인도 뿌나대학에서 10년간 수학했다. 현재 실상사 한주로 주석 중이다.

신중일 기자

반야부 경전 역경 불사 첫 발 내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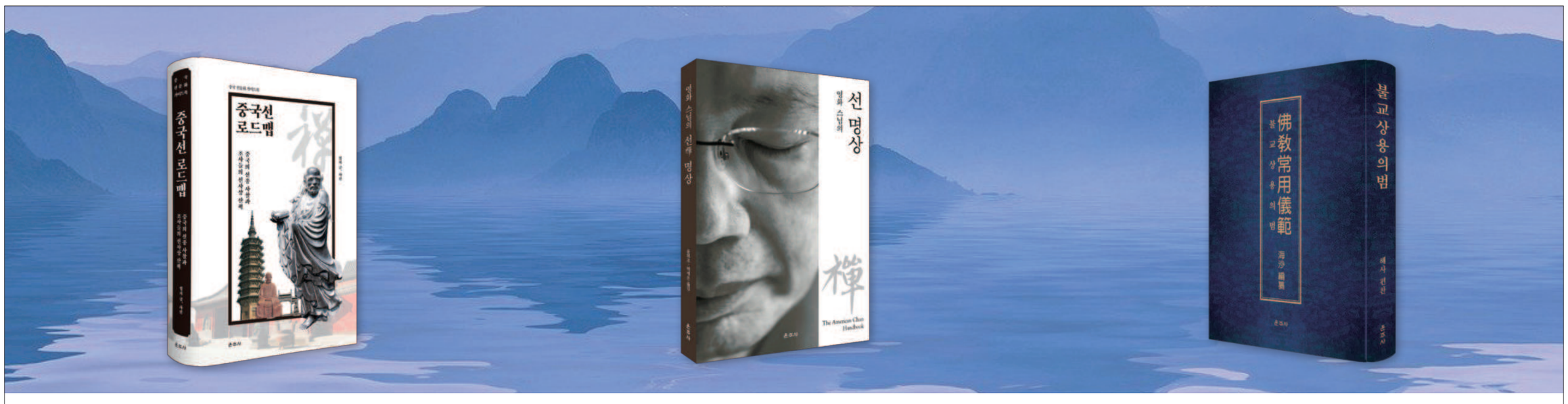


마하반야바라밀다경1
보운 스님 옮김
도서출판 혜안
4만8000원

대승불교문화권인 한국의 불자들에게 단연 가장 익숙한 경전은 〈반야심경〉과 〈금강경〉이다. 두 경전의 공통점은 모두 반야부의 경전이라는 점이다. '반야(般若)'는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의 이치를 확실하게 꿰뚫어보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식과는 구별해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지혜를 말한다. 대승불교의 보살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행의 수행법인 10바라밀 중에서, 반야바라밀은 다른 아홉 가지의 바라밀을 완성시키는 근거가 된다. 이 반야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하반야바라밀다경'인데, 모두 600권으로 결집됐다. 이를 한자 260자로 짧게 요약한 경전이 잘 알려진 〈반야심경〉이고, 제577권의 내용을 따로 편집한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에 대해 역자 보운 스님은 "우리나라 사부대중들은 '반야'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일반 대중들도 이 단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그러나 반야가 무슨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고, 이 가르침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의 관점에 대하여 깊이 논의하고 반야의 사상을 유통하는 사부대중은 매우 드물다"면서 "법성(法性)을 찾아가는 수행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논장과 율장을 번역하였고 의궤를 찬집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으나, 출가하면서 아스라이 발원했던 〈마하반야바라밀다경〉을 번역하겠다는 발원은 지금 생(生)의 과업으로 남아있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중국의 선종 사찰과 조사들의 선사상을 찾아서!
중국선 로드맵
선종 초조 달마대사부터 허운선사에 이르기까지 역대 조사들이 머물던 사찰의 역사와 현황, 선사상을 정리해 놓은, 한권으로 만나는 '중국선종사'이다.
법지 글, 사진/신국판/양장/496쪽/값 33,000원

혼자 명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
영화 스님의 선 명상
초심자를 위해 기초적인 앉는 자세부터 경험 있는 수행자를 위한 기본 마음가짐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상 안내서이자 지침서'이다.
영화 스님 지음, 윤희조, 박재은 옮김/신국판변형/무선/244쪽/값 15,000원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설행하는 재 의식 총망라!
불교상용의범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각단 예경의식, 천도재나 각종 재회시 설행되는 제반의식문, 각단에 올리는 불공의식문, 각종 시식과 영반 등 누구나 편리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편찬!
해사 편찬/사륙배판/양장/696쪽/값 5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미타행자 본연 스님이 전하는 행복이야기



미타행자의 마음공부
본연 스님 지음
담앤북스/ 1만6000원

제주 토성 무주선원서 홀로 정진
매일 소중한 일상들의 단상 담아
잔잔한 글 안에서 행복을 고찰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주도 항파두리 토성 자락에 위치한 무주선원. 그곳에는 미타행자 본연 스님이 홀로 정진 중이다. 본연 스님의 하루는 수행자라면 그렇듯 빨리 시작한다.

본연 스님의 하루는 새벽 2시 40분에 시작된다. 2시 40분에 일어나 3시부터 일과를 시작한다.

다리를 포개고 허리를 세워서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한다. 들숨을 깊게 하면서 가슴으로 온 중생을 끌어안으며 "일체중생의 고통을 다 거두어 주겠습니다" 날숨에 낱낱이 자비심을 방사한다. 본연 스님의 하루는 이 만트라이자 진언이자 서원인 주문과 함께 시작된다. 이 마음이 비록 거짓일지라도 부처의 마음을 지어 나가면 언젠가는 증명하리라는 믿음으로, 다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반복한다.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마음에도 진심이 쌓이기 시작한다. 어느덧 "모든 이들이 고통을 여의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그 마음은 순수한 진심이 되고 그렇게 쌓인 공덕이 일체중생에게 미치어, 일체중생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4시 15분, 새벽예불을 마치고 방에 들어온다. 6시, 새벽기도와 좌선 한 시간 후 아침 공양을 한다. 8시, 108배와 송주, 좌선, 사시기도까지 마치면 11시 30분이다.

점심 공양을 마치면 오후 울력이 시작된다. 수행 삼아 꽃과 나무 심고 물 주고 풀 뽑고 거름 주며 정진한 결과가 도량에 정직하게 드러난다. 말 그대로 극락도량이다. 법당과 마당을 오가며 틈틈이 은사스님 법어집 정리해 법공양 출판도 한다. 허튼 시간 없이 십여 년의 세월을 충실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무주선원이 아름답고 풍성해졌다. 하나부터 열까지 본연 스님 혼자 스스로 해나가며 만든 결실이다.

'미타행자'라는 명칭은 사형이 사제를 격려하기 위해 붙여준 별칭이다. 그렇기에 본연 스님은 오롯이 정진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번 책 〈미타행자의 마음공부〉는 본연 스님의 네 번째 이야기다. 〈미타행자의 편지〉 〈미타행자의 염불수행 이야기〉 〈미타행자의 수행한 담〉에 이어 이번에는 수행자의 삶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바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본연 스님은 이웃을 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러한 보석과 같은 귀한 마음을 지니고 일으키면 모든 시비(是非)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모든 번뇌와 갈등, 망상을 걷어 낼 수 있다. 이 마음을 지니면 스스로 환희심을 느낄 수 있으며 그 환희심으로 사바세계를 밝힐 수 있다.

사바세계를 밝힐 수 있는 마음을 본문에서는 이 같이 소개한다. 1장에서는 친절과 배려하는 마음, 자비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성이 도(道)이고 친절이 도이다. 자기의 업(業)에 정성을 들이고 모든 이에게 친절한 것이 바로 수행이다. 2장에서는 감사와 받아들임에 대해 이야기한다. 본연 스님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모두 감사함을 느낀다.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에, 부처님 무량공덕을 찬탄하고 회향할 수 있는 신심에 감사한다.

3장에서는 수행하는 삶에 대한 행복과 만족에 대해 이야기한다. 도량도 가꾸고 마음도 가꾸는 것이 본연 스님의 수행이자 일상이다. 행복은 일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4장에서는 함께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함께하는 신도들, 큰 깨달음을 준 큰스님, 그리운 부모님 등 본연 스님과 깊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다. 함께해 준 이들이 있기에 수행자의 삶이 외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롯이 홀로 정진하는 본연 스님의 삶은 고독해 보일 수 있지만, 스님의 글을 좇으면 그 안에는 행복으로 충만하다. 원두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 8년간의 기다림 끝에 열매를 맺은 귤을 볼 때 느끼는 반가움은 범부들은 놓치고 있는 소소한 행복들이다. 본연 스님의 글은 우리의 삶 속에도 행복이 항시 존재함을 일깨운다.

▲저자 **본연 스님**은
'본연'은 전남 곡성 태안사로 출가했을 때 평생을 하루같이 용맹정진하다 열반한 청화 스님(1923~2003)이 스승과 제자 간의 인연을 맺으면서 내려 준 법명이고, 미타행자는 염불수행하는 사제를 격려하기 위해 사형스님이 지어준 별호다. 승보종찰 송광사 강원에서 4년간 경전을 공부하고 비구계를 받은 뒤 기도처와 선원을 오가며 정진하던 중, 큰스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2003년 서귀포 성산 자성원 주지를 자청하여 4년간 기도하며 차밭과 텃밭을 가꾸고 살면서 제주도와 인연이 시작됐다. 자성원 주지 소임을 놓은 뒤 다시 선원과 기도처를 찾아다니며 수행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제주시 항파두리 근처 자그마한 수행도량 무주선원을 열어 수행과 울력으로 극락도량을 일구고 있다.

不二사상으로 세상을 꿰뚫다



불이문을 넘어 붓다의 세계로
이찬훈 지음
산지니/ 3만8000원

불이(不二). 부처님이 깨진 마음자리, 대립을 떠난 경지를 의미한다. 이는 〈유마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마 거사를 병문안 간 부처님의 제자들이 불이의 뜻에 대해 서로 토론하게 됐다. 이 토론에 참가한 제자가 무려 32명이었는데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이같이 정리했다.

"불이란 말로 설할 수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인식할 것도 없어서 일체 문답을 떠난 절대 평등의 경지다."

그러나 여기서 문수는 불이란 사유와 언어를 초월한 것이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라 설하면서 그 자신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최후로 유마 거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유마 거사는 오직 침묵한 채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유마 거사는 침묵으로 불이의 세계를 내보인 것이다.

불이사상을 연구해 온 이찬훈 인제대 인문문화학부 교수의 〈불이문을 넘어 붓다의 세계로〉는 불이사상을 불교의 핵심사상이라 보고 불교 전체를 불이사상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불이사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 나의 것, 나의 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무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책의 1부는 니까야에 담긴 연기론, 사법인, 사성제 등 초기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설명하고 불이사상을 논한다. 2부는 〈아비달마구사론〉을 중심으로 부파불교를 논하고 대승불교의 반야공사상과 유식사상, 대승기신론사상을 다룬다.

3부에서는 〈화엄경〉과 화엄사상을 불타관, 법계관, 보살관을 중점으로 서술하여 불이사상의 심화 과정을 밝히며 4부는 불이와 화엄사상의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살피고 있다.

이 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4부다. 불교를 관념적인 종교로만 논하지 않고 현대사회의 중요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데 활용하고 있어서다. 현대사회에서 불교는 개인의 내면적 변혁에만 치중하고 사회적 인식과 실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종교를 정신적인 영역으로만 간주한다면 종교를 통해 얻는 깨달음은 현실과 점차 유리될 것이다.

우리는 불교에서 우리 삶과 시대에 적합한 관점을 분별하여 삶의 지침으로 삼는 주체적인 자세를 가질 때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다가올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신중일 기자

팔만대장경 경판 수량은 얼마일까



팔만대장경의 경전과 경판 수량
유부현 지음
해조음/ 3만원

한국불교 문화유산 중 기록문화유산으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합천 해인사 장경각에 소장된 '팔만대장경'이다. '팔만'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지만, 정말 경판의 수에 대한 정량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집계된 바는 없다. 8만여 경판에 이른다하여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를 뿐이다.

유부현 대진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발간한 〈팔만대장경의 경전과 경판 수량〉은 팔만대장경의 경판 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노력한 10년간의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다.

유 교수는 저작을 통해 팔만대장경의 경전 전체 수량을 1546종 6796권 664질로 산정했다. 경판은 총 8만1350판인데, 이를 입장판·중복판, 원각판·중각판으로 분류하면 △입장판 8만 1238판·중복판 112판 △원각판 8만 1232판·중각판 118판이다. 순수 고려대장경 경판은 7만 8371판이다.

책은 총 5부로 이뤄졌다. 1부에서는 '대장목록'에 기재된 경전의 경명과 권수 및 재조장에 수록된 모든 경전과 그 권수를 조사한 다음 전산처리를 통해 독립된 경전의 종수와 권수를 산출했다. 2부에서는 팔만대장경 경전을 구성별로 그 수량을 산출하고 팔만대장경의 전체 경전 수량을 산정했다.

3부에서는 팔만대장경의 경판 전체 수량을 입장판과 중복판, 원각판과 증각판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전체 수량에 대한 기존의 발표 결과를 분석했다. 4부에서는 '대승대교왕경'의 '분사대장도감판'과 '대장도감판'의 문자이동 및 저본과 판각 그리고 '분사대장도감판'의 간기와 각수 등에 대해 고찰했다. 마지막 5부는 여론(餘論)으로 2013년 7월 보물로 지정된 '내전수함음소'에 대해 소개했다.

유 교수는 "이 책에 발표된 '팔만대장경의 경전과 경판 수량'이 향후 정론적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경전과 경판 수량을 확정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운암 김성숙 저술 망라 첫 걸음



운암김성숙 전집1: 저술편
김재욱, 이진명, 방준호 옮김/ (사)운암김성숙선생 기념사업회 엮음/ 소명출판/ 3만5000원

운암 김성숙은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898년 음력 3월 30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림면 강암동에서 태어나 독립과 민주공화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봉선사 승려로서 3·1운동에 참여하며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고, 출판물 편집과 이론가로 활동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하며 1945년에 본국으로 귀국한 후에는 분단 극복과 민주공화 구현에 헌신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표창을 청구하지 않았고, 생전에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다. 1969년 4월 12일 71세의 나이로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택 피우정(避雨亭)에서 별세했다. 198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고 2004년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하지만, 그의 삶과 사상을 살필 수 있는 저서와 저술이 조명받지는 못했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가 엮은 〈운암 김성숙 전집1〉은 이를 조명하기 위한 첫발이다. 편찬에는 신주백 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전문연구원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신중일 기자



미국 아이비리그 브라운대학교 학생들이 선택한
마음챙김 명상의 마스터클래스!

전 세계 명상 교육·연구의 중심지 브라운대학교가 개발하고
카이스트 명상 전문가가 추천하는 과학적인 명상 프로그램
'마음챙김에 기반한 대학 생활'을 소개하다
(Mindfulness-Based College, MBC)

스무 살, 명상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
10년 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마음챙김하자!

에릭 B. 룩스 지음 | 김완두, 박용표, 김경희, 김윤희 옮김
320쪽 | 20,000원

추천의 말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완벽한 책."
- 존 카밧진,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창시자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캠퍼스에서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할 선물 같은 책."
- 팀 라이언,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려고 짐을 꾸릴 때 함께 챙긴 것을 기뻐할 만한 책."
- 제프 슈만 올리비에,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내면과 외면을 탐색하고자 하는 모든 젊은 성인을 위한 필수적인 안내서."
- 저드슨 브루어, 브라운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보륜 성오 대종사

“因果 지중함을 알아야 진짜 불자”



보륜 성오 대종사는… 1959년 백양사에서 장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9년 서옹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조계종 원로의원. 불복장작법의 전승자로서 불교문화진흥에 진력하고 있으며 나주불교의 산증인으로서 사부대중을 지도하고 있다.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는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다. 달리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에는 햇살과 바람을 먹은 생명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피어나는 생명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 도착한 전남 나주. 사실 이런저런 일로 여러 번 나주를 ‘스치듯’ 오가기는 했지만 길게 머물러 본 적은 드물다.

나주에 가면 꼭 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심향사(尋香寺)다. 나주를 대표하는 사찰로 나주의 역사와 함께해 온 여러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다. 두 번째는 심향사 주변의 학교들이다. 나주지역 고등학교 불교학생회의 ‘전설’을 너무 많이 들어왔던 터라 금성고등학교와 나주공고 등의 외관이라도 꼭 보고 싶었다. 심향사 좌우의 나주공고와 금성고를 먼저 둘러보고 심향사로 향했다.

“마음을 찾는 향기로운 도량”

심향사의 명물 모과나무와 인사하고 극락보전에 들러 부처님께 절을 올린 후 팔관선원(八關禪院)으로 향했다. 나주불교의 산 역사이자 심향사와 주변 학교들의 ‘공통분모’인 조계종 원로의원 보륜 성오 대종사를 만나기 위해서다.

팔관선원 현판을 보니 절 입구에 서 있는 비(碑) ‘고려 팔관회 도량 심향사’ 글씨가 생각났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야 했다.

나주 팔관회의 역사는 고려 현종이 1010년 11월 거란군의 침입을 피해 12월 27일 출궁해 나주까지 피난을 온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의 나주 객사 인근에 도착한 현종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심향사에서 매일 부처님께 국태민안(國泰民安) 기도를 올렸다. 나주 객사에서 심향사로 가는 길목은 현재 ‘사매기’라고 불린다. 현종이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건넌 다리를 사마교(駟馬橋)라고 했는데 이와 연관이 있는 듯하다.

성오 스님은 “피난생활을 마치고 돌아간 현종은 나주에서 팔관회를 개최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현종이 나주를 개경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의미”라며 “나주 팔관회의 중심 사찰이 심향사였다. 그래서 불자들이 공부하고 정진하는 장소를 팔관선원이라 명명했다”고 전했다.

팔순을 앞둔 어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오 스님은 정정했다. “내가 마흔아홉 밖에 안 됐어요. 하하.” 스님의 농담이 진담처럼 들릴 정도다.

스님이 내려준 차를 마시기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무선 마이크와 큰 칠판.

“3월부터 20여 명의 불자들과 함께 〈불교입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뒷방에 앉아 있기보다 자주 사람들을 만나야 저도 젊어지고 절도 활기차고 나주불교도 씩씩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듣던 대로였다. 포교와 교육은 물론 불교문화에도 조예가 깊은 선지식(善知識)이 바로 성오 스님이다. 차를 마시기 전, 오래전부터 듣던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었다. 바로 198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한 고등학생 포교의 ‘전설’이다.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성오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한 스님의 증언은 이렇다.

“젊으셨던 만큼 대단히 진보적인 어른이었습니다. 항상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신행활동을 고민하셨어요. 때로는 삼촌 같았고 또 때로는 부모님 같았어요. 법당에서만큼은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스승 중의 스승이셨습니다. 고등학생 때 불교를 잘 배워서인지 청년회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큰스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기수에 한 명은 출가하자고 우리끼리 발원을 했고 실제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법구경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전생이 알고 싶다면 현생을 살피고

내생이 궁금하면 너의 행동을 봐라”

불자라면 모름지기 인과를 파악해야

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전승 보유자

은사 어깨너머로 불복장작법을 익혀

“깨달음의 과정을 불상에 모시는 것”

성오 스님이 ‘심향사 불교학생회’를 만들고 나서는 기수별로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절로 찾아왔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법회 때마다 100명 안팎의 청춘들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성오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출가한 스님으로는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과 함평 용천사 주지 혜용 스님 등이 있다. 얼마 전 〈청화 전기: 위대한 스승〉을 쓴 김용출 작가도 학생 시절 성오 스님에게 불교를 배웠다. 성오 스님은 “불교를 대표하는 인재를 1년에 1명씩만 키우자”라는 서원을 가지고 포교했다고 당시를 술회했다.

“제가 특별히 한 것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하고 가르치니까 아이들 스스로 절에 나오고 또 여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절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라면 한 박스를 사다 놓으면 이틀이면 없어져요. 라면 사는 일이 제 주요한 일이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한 번은 나주 시내에 괴한이 나타났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학생들이 절에 와서 저를 지켜준다고 며칠 밤을 같이 새운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재를 1년에 한 명씩만 키워내자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불교를 대변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다들 훌륭하게 자라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오 스님이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일화들이었다. 그렇다면 성오 스님은 언제 심향사와 인연이 닿았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은사스님은 부처님 다음 부처님”

“저의 불연(佛緣)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절에 오게 된 것은 집에 있으면 단명한다는 어른들의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많이 서운해 하셨지만 아들 살린다고 저를 절로 보내셨어요. 열세 살 때 집 인근의 광주 관음사로 가니 ‘할아버지 스님’이 계셨어요. 그 어른이 바로 은사 장조 큰스님이셨습니다. 큰스님과 저의 나이 차이는 무려 60살이었습니다. 손상좌나 증손상좌뻘인 애기를 상좌로 받아주셨습니다.”

장조 스님은 근현대 백양사를 지켜낸 어른이다. 한국전쟁 당시 낮에는 국군, 밤에는 북한군이 백양사를 점령하면서 당시 주지를 살던 장조 스님의 상좌들은 강제징집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어린 성오 스님이 장조 스님을 시봉하게 됐다.

“조그만 집에서 살다가 마당도 넓고 방도 많은 절에 가니 조금 생소하면서도 신기했어요. 관음사 법당은 다다미가 있는 일본식 법당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위엄 있게 보였어요. 어린 마음에 절에서 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3면에 계속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보륜 성오 대종사

정치인들, 부처님 '칠불쇠법' 마음에 새겨라

12면에 이어

갈등 반복하는 정치인들을 위한 당부
"자주 논의하고 모든 일 공명정대하고
서로를 이해 · 공경하면 나라는 발전해"


은사 장조 스님의 부도탑을 참배하고 있는 성오 스님.


성오 스님이 팔관선원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절에서 염불도 배우고 일도 하면서 지내다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은사스님 말씀에 따라 백양사로 갔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내외전에 두루 능통하신 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동국대를 졸업하신 것은 물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백양사가 청류암에 설립한 광성의숙(廣成義塾)에서도 정진하셨어요. 이때 측량, 제도, 산술 등을 공부하셨는데 훗날 주지로서 백양사의 산과 토지를 다 점검해서 재산목록을 정리했습니다. 28년간 백양사 주지 소임을 보면서 오늘날의 백양사 기틀을 다지셨습니다."

은사 장조 스님은 '생불(生佛)'이라며 주위의 존경을 받았다. 성오 스님은 그와 관련한 일화도 소개했다.

"한국전쟁 당시 일입니다. 하루는 저녁에 촛불을 켜놓고 앉아 〈능엄경〉을 보고 계시는데 북한군이 와서 문을 확 열어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없네'하고 그냥 갔다고 해요. 두세 번을 그랬다고 합니다. 동네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군이 다녀가서 큰스님 신변에 무슨 일이 없나 하고 가서 보면 스님이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방에 부처님만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백양사에 생불이 계시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성오 스님은 장조 스님을 "부처님 다음 부처님"이라고 했다. 이런 장조 스님이 성오 스님에게 항상 강조하던 말씀은 "중노릇 잘하라"였다.

장조 스님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성오 스님은 백양사 강원을 졸업하고 설호 스님에게 대교과정을 마친 뒤 이(理)와 사(事)를 넘나들며 정진을 계속했다.

"설호 스님께 경전의 체계와 구성을 배웠습니다. 경전을 찬찬히 보면 그 많은 글자에 덧붙은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호 큰스님께서는 특히 은과(隱科)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전에 숨어있는 맥, 숨겨진 뜻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선교(禪敎)에 능통한 성오 스님은 염불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스님은 '송문관의(誦文觀義)'를 강조했다. 소리 내어 경전을 외우면서도 마음으로는 뜻을 이해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生命의 작업, 불복장작법

성오 스님은 최선을 다해 은사 장조 스님을 시봉했다. 은사스님을 통해 백양사의 역사도 알아가게 되었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전국의 모범사찰입니다. 잘 아시듯이 수많은 선지식들의 법향(法香)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교학(敎學)면에서 보면 설파·연담·백파·환응·석전·만암 스님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선(禪)으로는 학명·서옹·청화 스님 같은 대선사가 계셨습니다. 염불수행도 전통이 있습니다. 백파 스님께서 정리해놓은 〈작법귀감〉이 기본 바탕이 돼 안진호 스님의 〈석문의범〉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양사에서 염불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양사에서의 단련을 마치고 장조 스님과 함께 성오 스님은 1970년대 초반 심향사로 왔다. 대웅전과 미륵전, 요사채가 전부였지만 심향사에 와서는 심상치 않은 인연의 기운을 느꼈다.

"심향사 부처님에서 나온 복장기에 '정통 성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통은 물을 관리하는 소임입니다. 나주제일약수로 꼽혔던 우물이 심향사에 있었거든요. 또 담양 호국사 복장 봉안의식을 행할 때 1660년에 조성됐다는 조성발원문을 확인했는데 당시 증명법사 법명이 저와 같은 성오(性悟)였습니다. 불복장에서 나온 기록마다 '성오 스님'을 만나다 보니 심향사와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과 저는 전생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오 스님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의 전승 보유자다. 불복장작법과의 인연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은사스님께서는 모든 것에 다 능통하셨고 그중에서도 의식에 아주 밝으셨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큰스님께 구체적으로 배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큰스님 시봉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공부했을 뿐입니다. 복장의식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처님은 미술품이나 조각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장의식과 점안의식이 여법하게 이뤄져야 예배 대상으로서의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성오 스님은 백양사 사천왕, 보은 법주사 팔상전, 공주 동학사, 완주 송광사, 세종 영평사, 광주 마하보리사 등에서 수십여 차례 불복장작법을 설행했다. 스님은 불복장작법의 의미와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복장은 생명의 기본에서부터 최고의 깨달음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과정을 보면 먼저 오장 안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오곡입니다. 오곡은 음식이고 인간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식량이 충족되면 금전이 필요해요. 그것이 오보입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건강, 오약이며 마지막으로 품위, 오향이 요구됩니다. 오황도 이와 비슷해요. 오개자는 모든 종자의 근본입니다. 갖출 것을 다 갖추고 나면 필요한 것은 부처님과 같은 성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채번이 들어가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진짜 나는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본질을 찾는 것이죠.

그다음 오색사가 들어가요. 오색사는 잡된 것, 쉽게 말하면 악마 같은 것을 정화하는 하나의 성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아름다운 꽃도 피어납니다. 다음으로 오보리수엽인데, 보리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이죠. 보리수는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오길상초는 깨닫지 않고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돈독한 마음을 뜻합니다. 오산개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음을 말합니다. 원초적인 것부터 발심하여 진짜 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는 마음을 거쳐 깨달음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금강저는 깨달음을 얻었기에 자연 전체가 부처님께 감복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을 부처님의 몸 안에 모시는 것이 불복장작법입니다. 말하자면 부처님 형상 안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과정 전체를 집어넣는 것이죠. 깨달음은 욕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은 복장을 행하고 이해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불복장작법에 이어 성오 스님은 수행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저도 깨치지를 못해서 뭐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심안(心眼)이 열려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만 사야다 존자와 그 제자 바수반두 존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한 끼만 먹고 눕지도 않으며, 청정하여 욕심이 없어서 대중들의 귀의할 바가 된 바수반두를 교화하면서 사야다 존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도를 구하지 않되 그렇다고 전도되지도 않으며, 나는 예불하지 않되 그렇다고 업신여기지도 않으며, 나는 늘 앉아 있지 않되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으며, 나는 한 끼만 먹지 않되 그렇다고 잡식하지도 않으며, 나는 만족함을 알지 못하되 그렇다고 탐욕하지도 않음이라.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없음이 이름하여 도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바수반두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행정진은 사야다 존자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불자라면 모름지기 인과(因果)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생의 일이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현생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 내생이 궁금한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欲知全生事 今生受者視 欲知未來事 今生作者視)' 인과의 지중함을 알아야 진짜 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박혀있는 성오 스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스님에게 '화합'에 대한 말씀을 청했다. 연초부터 진행된 '선거 전쟁'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칠불쇠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모여 논의하고 모든 일이 공명정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수행자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발전하고 국민들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성오 스님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고 했다. "머리 위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떨어지지 않게 모신다"는 것이다. 불행수행(佛行修行)을 실천하는 성오 스님의 신심(信心)과 원력(願力)은 쉴 생각이 전혀 없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유철주 / 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⑧ 서남산 선각육존불



▶한줄 요약
경주 남산 삼릉계곡에는 선각으로 불보살을 조성한 '선각육존불'이 있다. '선각육존불'은 본래 채색돼 찬란한 위용을 자랑했다.

채색으로 장엄됐을 여섯 불보살들



일제강점기 당시 촬영된 경주 남산 선각육존불.

우뚝 서 계신 관세음보살님을 뵙고 기원 올린 여러분은 즐거움과 환희에 찬 풍요로움이 가득 차오를 것이다. 그 이름을 들은 사람이나 그 이름을 봉독한 사람은 관세음보살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조금만 남산의 불국정토 품으로 들어서면 선각육존불이 여러분을 맞이해 준다. 선각육존불이면 여섯 분의 부처님이 계신가 싶지만 두 분의 부처님과 네 분의 보살님이 계신 선으로 새겨진 불상이다.

기본 상식 하나. 경주 남산은 계곡을 끼고 불국정토가 조성돼 있다. 아니, 전국의 모든 산사는 계곡을 끼고 있다. 이유는 계곡의 물 때문이다. 물이 없다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곡이 아닌 구릉지에 절이 있다면 백이면 백 '깨끗한 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바꿔말하면 계곡에 물이 없거나 샘이 솟는 구릉이 아니라면 그곳엔 절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삼릉계곡 선각육존불은 웅장한 바위 두 면에 한 분의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이 각 각의 면에 새겨져 있다. 정면을 바라보고 왼쪽 바위 면의 부처님은 서 계신 입상이고 오른쪽 바위 면의 부처님은 앉아계신 좌상이다.

또한 서 계신 부처님 좌우의 보살님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중앙의 부처님을 향하여 연꽃으로 보이는 공양물을 올리고 있으며, 오른쪽의 앉아계신 부처님 좌우의 보살님은 서서 살짝 고개를 돌려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다. 불상을 선각한 이름 모를 조각가의 창의력이 신선하다. 두 면에 비슷한 모양의 불보살님이 계셨다면 참배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오래도록 사로잡지 못했을 것이다. 두 면의 불보살님의 차이를 구분해보는 즐거움을 주는 선각이다.

왼쪽 면에 서 계신 부처님의 수인은 어디서도 보지 못한 모양새다. 오른손을 가슴 위까지 들고 손바닥은 밑을 향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배꼽 바로 밑에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고 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싶지만 '기운을 모으는 동작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영화에서 도인이 단전이나 자연의 기운을 끌어올릴 때 자주 쓰는 동작이 기억나게 한다. 물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부처님의 수인일 것인데 어떤 수인인지 알 수가 없다. 남산에서만 보이는 수인이기 때문이다.

오른 면 부처님은 왼손을 무릎에 놓고 손바닥은 하늘로 향해 펴고 있으며, 오른손은 살짝 오른쪽 가슴으로 기울어서 엄지와 중지를 맞닿고 있다. 이러한 모양새는 아미타부처님의 구품인 중 중품을 상징하는 수인이며, 왼손은 석가모니부처님을 대표하는 선정인이다. 이러한 모습이면 부처님이 누구신지 알기가 힘들어진다. 선각육존불 앞 설명에도 부처님 이름인 명칭이 없다. '경주남산연구소'에서 펴낸 안내서에 보면 오른쪽 앉아 계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삼존불이며, 왼쪽의 서 계신 부처님은 아미타부처님으로 두 불상은 현생과 내생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른쪽 부처님이 아미타부처님이 아닌가 싶다. 왼쪽 부처님은 어디서도 보지 못한 수인이라 누구신지 알 수 없지만, 오른쪽 부처님의 오른손이 아미타불의 수인이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여러 이야기를 품어 끝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비밀스러운 부처님이시다.

경주 남산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두 바위에 선각으로 불보살 조성
앞에 빗물 흐르지 않도록 설계해
불보살 채색해 신라인 신심 고양

이제 진정한 선각육존불의 신비로움이 남아있다. 아니 통일신라시대 화려했던 불교미술의 정수를 확인할 시간이다. 기대하시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불교미술의 찬란함이 선각육존불을 통해 펼쳐지게 된다. 함께 그 옛날 신라시대 700년대로 가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아야 선각육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다.

선각육존불은 선으로 불상을 그린 마애불이다. 어찌 보면 정성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다. 불상의 조각을 정성들이지 않고 억지로 했든가 아니면 대충 조각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누구든 가까이 가서 보면 뭔가 아쉬움이 들게 하는 것은 조각의 완성도도 떨어진다. 그런데 여기에 신라인들만의 특별함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무진 스님이 선각육존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옛날 선각육존불을 조각한 신라인들이 양각이나 음각을 깊게 하지 않은 이유는 채색을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화려하게 채색된 마애불을 보지 못한다. 그렇기에 '좀 아쉽네'하며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채색된 선각육존불을 본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존엄하며, 그 얼마나 환희로울까!

신라의 남산은 지금처럼 빽빽하게 나무가 자라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남산의 사진을 보면 바위가 드러나 나무를 찾아보기 힘든 산이었다. 나무를 땔감으로 했던 시대에 도심 경주와 가까운 남산에서 나무는 눈 밝은 누군가가 벌써 벌목해 갔을 것이다. 옛 도심 근처의 산에는 나무들이 자랄 틈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 시대적 상황이다. 그렇기에 남산 근처 마을에서 바라보면 남산의 큰 바위는 눈에 바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곳 큰 바위에 채색이 된 부처님이 계신다고 상상해보자. 신라시대로 가서 채색된 선각육존불을 참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차오를 것이다.

선각육존불의 큰 바위 윗면에는 빗물의 앞이 불상으로 흐르지 않게 길게 홈이 파여있다. 비가 오면 불상 위의 좌우로 빗물이 흘러가게 홈을 판 것이다. 또한 목재를 고정한 사각의 홈도 보인다. 지붕을 덮은 흔적이다. 채색된 선각육존불의 앞쪽으로는 비가 와도 빗물이 흐리지 않게 한 것이다. 이것은 빗물을 막는 가리게 역할의 지붕 건물로 보인다. 그런데 선각육존불만 채색이 되어 있었을까? 아니다. 남산의 모든 불상과 마애불은 채색이 돼 있었다.

지금 우리는 법당에 들어서면 부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신라시대엔 그렇지 않았다. 경주 도심의 사찰은 왕족만 들어갈 수 있거나 귀족만 들어갈 수 있는 사찰로 구분된다. 일반 백성이 도심의 사찰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남산은 일반 백성들이 참배할 수 있었다. 남산에는 돌담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도 없었다.

조선 후기에 와서 법당 내부에 목재의 마루가 깔린다. 그 이전에는 지금의 보도블록처럼 전돌이 법당 내부에 깔려 있었다. 그런데 남산에는 전돌이 하나도 출토되지 않았다. 즉 남산의 전각은 채색된 불상에 빗물이 흐르지 않도록 지붕으로 가린 건물이 있었을 뿐이란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멀리서 누구나 부처님을 뵐 수 있도록 뻥 뚫린 건물이 채색된 불상을 보호하고 있었을 뿐이다. 신라시대 남산을 바라보면 울긋불긋하거나 화려하게 채색된 불상에 여기저기에 있었다. 얼마나 화려했을까! 얼마나 환희로울까! 그때의 찬란한 남산의 불상들을 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시야를 가리는 무엇도 없는 남산의 바위에 새겨진 붉은 가사를 두른 부처님과 채색된 석조불상이 가득한 남산이 고개만 돌리면 눈에 들어온다. 남산을 바라보며 환희에 찬 얼굴로 부처님께 기원을 드린다. 어디 멀리 갔다 경주로 돌아오면 남산의 부처님이 잘 다녀왔다고 반겨준다. 신라시대 불국정토 남산의 채색된 불보살님의 모습이 정말 보고 싶다. 지금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찬란한 신라시대 불국정토의 남산이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7대 종정 취임 법회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4월 3일 총본산 서울 일붕선원에서 제7세 종정 운악 대륜 대종사 취임법회를 봉행하였기에 이를 알립니다.

대륜 대종사는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단을 창종하신 일붕존자와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이어 한국불교 주역으로서 불신과 갈등, 대립과 독선을 털어버리고 화합된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자"고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불기 2568년(2024) 4월 1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4월 1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 등기 이전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 창종자이신 현산 대종사께서 본인 소유의 인천 만수동 지장사 총무원 사무실을 3월 20일부로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으로 등기 이전 하였습니다. 현산 대종사의 희사로 여래불교조계종 종도들은 가르침을 이어 불법홍포와 중생구제를 위한 사단법인으로서 활동을 다짐하였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8년(2024) 4월 1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79호 | 15 | 전면광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시내 •부지 : 180평
•법당 : 40평 •요사 : 60
•매가 : 17억2천

•위치 : 인천 •부지 : 200평
•법당 : 60평 •요사:60평
•매가 : 1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지 : 약 340평
•건물 : 1, 2층 – 1층 26평, 2층 법당 20평, 요사채 15평(거실2칸, 해우소 3칸)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8914-1762

사 찰 안 내

•법당 요사채 2개, 방 5개, 임야 2100평
•사찰 밑 아파트 3000세대 거주
•시내 8분 거리
•가격 2억 5천만원(절충가능)
•창원시 마산 합포구

010-4192-0334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대지 : 350평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가액 : 4억 5천

010-7710-8334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대지 : 약 600 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위치 : 동해시
•여법한 목조건물(법당30평,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공양간, 창고, 주차장) 동해시와삼척 중간지점으로 포교 최적지임 / 인근에 휴양지 근접 (추암, 망상, 증산, 삼척해변)
•원력과비젼을 가진분께 양도함
•주지스님의 건강상 가액은 시세 이하로 협의합니다.
•좋은 인연을 기대합니다

010-9279-45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광역시 서구 신석로 111번길 3–1
• 2층 : 법당 30평
• 1층 : 요사채 30평
• 지하 : 15평
• 가액 4억원
• 스님 건강상 내놓습니다.
• 교통 아주 편리함

010-9286-1008

사찰(급)안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포교원(급)임대

•위 치 : 서울 강남 도곡동
•건물 5층 30평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불단 신중 영단 등 최고사양 완비 불구 600만원 상당
•가액 보증금 2000만원/80만원

010-9267-2556

사찰(급)안내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임 야 : 2,000평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사 찰 안 내

•장호원 감곡KTX역 10분거리 깨끗한 사찰
•대지 계획관리 1000평, 대웅전, 종각, 휴게소, 연못, 잔디광장, 요사채 3동, 다도실, 리라이트
•광석찜질방, 가온기치료기실, 각종 암환자들 치료 완비
•같이 사찰 운영한 보살이나 도반 스님, 매매나 전세
•가격 상담 후 결정

010-7151-8546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여고 옆 (시내버스 하차하면 5분거리)
•대지 : 100평(비봉산 자락)
•법당 : 27평(삼존불, 신중, 칠성, 영단) 정남향
•요사채(공양간 포함) 45평(화장실 3개)
•가액: 3억 7천(시중은행 1억 5백 담보대출 20년 상환)

010-5229-8445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찰(급)안내

•주소 : 경남 통영시 정량동
•대지 : 106평(텃밭 포함)
공기 맑고 아늑한 절
•가액 : 1억 5천만원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010-3344-6667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사찰 임대합니다
•위치 : 창원시 마산 합포구 어시장 너른마당
•50평, 부처님 삼존불 · 칠성 · 신중 · 산신 · 용왕 · 영가단
•방1 · 화장실 · 공양간
•보증금 1000만원/월40

010-4327-8688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고성
•대지 : 법당 26평, 요사채 공양간 산신각
•건물 : 종교부지 300평, 주차장 약 300평, 앞 화단 26평, 631평
•즉시 법회 가능함
2024년 초파일 즉시 하셔도됨
•가액 : 6억 9천

010-5519-7711

사 찰 안 내(토굴)

•위치 : 경북 영덕 동해안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법당 15평, 공양간 17평, 방 7개, 목욕탕 3, 외부화장실 2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석불 지장입불
•편리한 아파트식
•가액 : 2억 4천만원 (절충 가능)

010-2008-0377

사찰(급)안내

•위 치 : 부산 연산동
•땅값만 받고 양도 합니다
•대지 124평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심불(소불)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가격은 절충

010-7785-5577

사 찰 안 내

•위치 : 익산
•대지 : 약 300평 가량
•건물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됨
•법회 즉시 가능함
•가액 1억 6천

010-5581-3081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찰(급)안내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가액 10억

010-6325-5112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가액 : 3억 8천만원

010-5316-5669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봉 행

진각국사 혜심 탄신 제846주년 기념 제19회 추모 다례재

귀의 삼보하옵고

사단법인 진각국사선양회에서는 불향인 전남 화순을 세계적으로 빛내신 진각국사 혜심 탄신 846주년을 맞아 제19회 다례재를 개최합니다.
오는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화순문화원에서 봉행되는 다례재는 진각국사 혜심의 큰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화순군의 역사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봉행되는 이번 행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시 : 2024년 4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화순문화원
■주최 : (사)진각국사 선양회
■후원 : 화순군 Hwasun-gun 화순군의회 Hwasun-gun Council
■협찬 : 화순 문화원, 화순 초등학교 제37회 동문회, 화순읍 유천리 벽오동 보리밥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1길 16 혜심사 H·P 010–2971–4646

PREMIUM 싸이렌 SAIREN
since 1996 DONGWHA® INDUSTRIAL 동화특수산업(주)

유해 조류, 해충 및 동물 기피제

제품상담/시공문의 동화특수산업(주) 조류방제사업부
031-451-6232 / 010-3747-2111

조류 기피제 구조물용
건축물 등에 피해를 주는 조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모기·해충 기피제
천연 고급향료를 사용하여 개발된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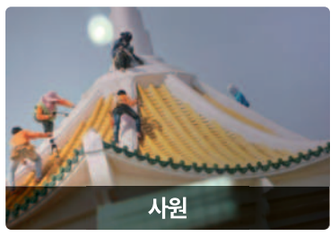
쥐 기피제
쥐를 해치지 않는 친환경 성분들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파충류 기피제
뱀, 도마뱀 등 파충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멧돼지 기피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유해 조류(새)에 의한 피해 예방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79호 | 16 | 전면광고

자신의 죄와 업장이 산과 바다처럼 많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이 죄와 업장을 몸과 마음을 다해 참회하여 없애야 할 것임을 잘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계초심학인문》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개인 지도 (통변비법 전수)

사주 · 작명 · 관상 · 풍수 · 타로
NAVER 용인 수현 철학원 검색
NAVER 송파 조수현 철학원 검색
010-8436-0056
010-8232-0057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한국빙의퇴마 기 치료연구소

지장대사 원력 단 한번으로 조상 천도
빙의퇴마 · 천병 · 신병 · 우울증 · 불명증 · 가정우환
병명 없이 몸이 아픈 분 상담 환영
010-5152-1222 (정례)

불교무량법계종 (종교법인)

도반 수행자 모집
함께 모여 정진하실 분 찾습니다
위치: 대구시 동구 파계로 22길 7
010-4766-6358

부전스님 1분 사무장님(여) 1분 공양주님(여) 1분 모십니다

부여 미암사
010-5424-5555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수행하며 오래도록 절에 계실 분 공양주를 모십니다

경북 예천 용화사
010-6529-2005

함께 하실 공양주 모십니다
함께 일할 거사님 모십니다
함께 수행할 행자님 모십니다
부산 만덕사
051-334-3009
010-3840-4355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347-5950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황룡사
• 주 지 : 만우 스님(속명 : 백영재)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 4길 47-8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헌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0일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성암사
• 주 지 : 혜원 스님(속명 : 김판훈)
• 주 소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성암안길33-36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헌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0일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개월분 3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 「마가목」 방영
■ 2022. 2.16.(수) KBS1 저녁6시 내고향 지리산 함양 해발 1000m 자생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 · 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본사는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세월호 알리기 위해 아빠는 카메라를 들었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㊲ 다큐멘터리 〈바람의 세월〉



다큐멘터리 〈바람의 세월〉 중 한 장면.

지금도 선명한 장면이 있다. 별 생각 없이 틀어놓은 뉴스에 비친 바다. 방송 카메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배가 기울고 있다고 했다.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단체로 타고 있다고. '저런, 큰일이네, 아이들 참 무섭겠다. 부모들 걱정이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다들 알게 된 상황이니 곧 구조가 되려니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전원 구조'라는 뉴스가 이어졌고, 수학여행 제대로 하긴 글렀으니 좀 억울하려니 정도로 생각했었다. 꼬박꼬박 세금 낸 보람도 느꼈다.

아니었다. 오보란다. 어선들이 달려가고, 헬기가 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곧 구조가 되겠거니 생각했다. 있을 수 없었던 오보, 나타나지 않던 국가 원수 같은 석연치 않은 정황이 걱정되었지만 그러고도 함부로 누구 탓을 못했다. 혹시 험한 욕을 하거나 원망이라도 했다가 동티라도 날까봐. 에어포켓이니 골든타임이니 하는 조금의 희망이라도 걸어볼 말들에 모두가 말도 삼가고, 행실도 가리는 동안 우리는 알게 되었다.

선장부터 구조하는 장면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곧 구조되려니 믿었건만 그 선장이 제일 먼저 빠져 나오는 동안 아이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가 전달됐고, 그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다들 믿고 따르고 있었으며, 그러다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즈음에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려고 필사적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 들려오는 말들은 정신 못 차리게 책임의 화살표를 휘어지게 만들었다. 청해진, 언딘, 해경, 대통령 부재 상황에 대한 거짓말, 연출된 조문, 논두렁에서 비명횡사해 백골로 발견된 구원파 교주.

그러는 동안 배는 침몰했고, 침몰된 배를 인양하는 대신 위험을 무릅쓴 잠수사들이 희생자들의 시신을 거두게 되었고, 희생자의 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해 유족이 되는 것이 차라리 실종자의 가족으로 남는 것보다 나은 처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두가 애도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상황에서 유가족들에게 험한 말을 쏟아내는 집단들이 목소리를 높여갔다.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내고도 멀쩡하던 언론들은 이제 유가족을 정치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그저 교통사고일 뿐이라는 정치인들의 망언을 보도하고, 사고 현장이나 이후 수습 과정에서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저질러지는 사회적, 정치적 폭력을 방관하며 모습을 지우려 했다. 그럴수록 유가족은 절박했고, 잊히기 전에 진상을 밝히고 책임도 묻고자 애를 썼다. 만나주지 않는 책임질 이들을 찾아 국회로, 청와대로, 그래도 내몰리니 거리로, 광장으로. 그때마다 자칭 애국청년, 자칭 어버이들이 몰려들어 위협했다. 함부로 종주먹을 대던 왈패들이나, 막말을 퍼붓던 애국이니 어버이니 하는 완장 찬 무리들이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는 눅어드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의 힘을 알게 되었다. 그

지성 아빠가 기록한 10년간 이야기
'세월호 참사'라는 '공업' 기억해야

래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총대 메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4.16TV'의 시작이었다.

그 아버지는 지난 10년 동안 '지성 아빠'로 불렸다. 단원고 학생 문지성, 그 이름이 아빠의 이름이 되었고, 노숙하고, 행진하고, 농성하는 희생자 가족들의 모습을 담고 세상에 전했다. 언론이라는 거창한 사명이나 명분에 앞서 언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유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카메라를 들어 온 10년 세월, 오는 4월 16일이면 3654일이 될 동안 찍고 모은 영상 숫자가 5000여 개를 넘도록 그는 '지성 아빠'였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동안의 기록을 엮은 다큐멘터리 〈바람의 세월〉로 10년 동안 보아온 그의 이름이 감독인 '문종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종택 감독은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카메라를 들 수 있었던 힘은 다른 부모님들이었다며, 초반에는 하도 많은 언론들이 왜곡하니까 자신이라도 카메라를 갖춰 들고 갔는데, 그때마다 희생자 엄마 아빠들이 '우리 카메라 왔다', '지성이 아빠 왔다'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며 촬영도 배우고, 편집도 익혀가며 4.16TV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인터넷 방송이지만 그 유가족들에게는 지성이 아빠 문종택 감독이 놓지 않는 카메라가 의지가 되었던 세월이 곧 영화 〈바람의 세월〉이다. 자신도 지성이를 잃은 슬픔으로 가득한 상황에서도 "카메라가 없으면 부모님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니까 편집 끝나자마자 또 찍으러 달려가고 그랬습니다"라는 문종택 감독의 심정은 어떤 다큐멘터리스트보다도 절절하다.

그렇게 희생자 가족들을 영상으로 지키는 동안 지성 아빠는 그 기록을 영화로 만들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 처음에는 누군가 영화로 가장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감독에게 맡기려 생각해서 그동안 세월호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이슈를 영화로 만들어온 김환태 감독을 만나 공동감독이자 나레이션까지 맡게 되었고, 이제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영화는 누구 아빠가 쌓은 별업을 가늠하는 기록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공업을 모으고 이어내고 있다. 사실 나랏일 맡아 '공인'의 자리에 있는 공직자라거나 정치인이이라면 모를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은 우리 모두의 업'이라고 여기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건은 공인이 아니라도 공업이 된다. 함께 지켜봤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에 저마다 어떤 식으로든 의견과 판단, 감정과 행위로 참여했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사는 이들의 '공업'이 되는 이런 일들은 대개 좋은 일보다는 전쟁, 참사, 재난 등 어둡고 무거운 상황인 경우가 많다. 가령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가 그렇다. 하필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기 전인 푸릇푸릇한 세대들이 즐겁게 나선 길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희생자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을 발견한 날짜와 시간이 다 달라 각자에게 힘든 날도 다 다르기 때문에 4월 16일부터 한 달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아이가 발견될 날까지 버텨야 했던 그 힘든 상황에 옆에 누군가 있다면 그 자체로도 힘이 된다는 문종택 감독과 탄핵 이후 유가족들의 상황을 잘 모르게 된 2017년 이후의 기록들을 통해 10주기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과 어떻게 연대해 나가면 좋을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며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김환태 감독의 당부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와 닿는다.

올해 2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 부위원장 고금 스님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만나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픔"이라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지만, 사고 이후 처리가 미흡한 점이 많고, 사고 자체가 없어야 하지만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유족이나 국민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종도와 불교도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행정적인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위로하기도 했다.

〈바람의 세월〉을 보러 극장을 향하는 발걸음들이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전하며 우리 모두의 공업을 닦는 작은 기도가 되기를.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⑮

1. 사문유관(四門遊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동문 : 노인의 모습을 보다.
- 남문 : 병든 사람을 보다.
- 서문 : 죽은 사람을 보다.
- 북문 : 출가 수행자를 보다.

[보기]
ㄱ. 현실은 너무나도 괴로움이 많으니 다 포기하자!
ㄴ. 삶의 현실적 고통에 대한 자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ㄷ.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구제와 화합을 주장하였다.
ㄹ. '괴로움은 왜 생기는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 사문유관은 생로병사라는 삶의 현실적 고통에 대한 자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태자는 이를 통해 괴로움은 왜 생기는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겨 출가(사문유관 다음의 유성출가)를 하게 되었다.

2. 싯다르타 태자의 사문유관에서 만난 사람과 관련 없는 것은?

① 동문 : 노인
② 북문 : 수행자
③ 중문 : 갓난아이
④ 남문 : 병든 사람
⑤ 서문 : 죽은 사람

해설 : 사문유관에서 사문이란 네 가지 문으로 동남서북의 네 문을 말하며, 중문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하게 되는 결정적 동기를 제공하는'사문유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성의 서쪽 문에서 장례 행렬을 보고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② 성의 북쪽 문에서는 모든 고뇌를 씻어낸 듯 평안한 모습의 출가자를 보고 자신도 출가수행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③ 성의 동쪽 문으로 나가서는 계급이 낮은 군인이 계급이 높은 군인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고 슬픔을 느꼈다.
④ 성의 남쪽 문으로 나가서는 심하게 병든 사람을 보았고, 여기서'인간이 병들어 고통받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⑤ 사문유관이란 카필라성의 동·서·남·북문으로 나가 유람하다가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인 생로병사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사건을 말한다.

해설 : 태자는 성의 동쪽 문에서 늙은 사람을 보고 슬픔을 느꼈다.

4. 싯다르타 태자의 사문유관에 관한 설명이 바른 것은?

① 병든 자와 출가한 수행자만 목격했다.
②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만 목격했다.
③ 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오직 귀족들만 보았다.
④ 인간세상의 모순과 고통을 보고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켰다.
⑤ 인간세상의 모순과 고통을 보고 좋은 정치를 하는 왕이 되기로 결심했다.

해설 : 태자는 동남서북의 태어난 신분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과 이로부터 자유로워 보이는 출가자를 보고 인간 세상의 모순과 고통을 보고 깨달음을 구하겠다고 마음을 일으켰다.

5.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처님은 녹야원에서 최초로 설법하였다.
② 부처님의 최초 가르침을 '초전법륜'이라고 부른다.
③ 부처님의 최초 가르침 이후 삼보(三寶)가 갖추어졌다.
④ 부처님의 최초 가르침의 내용은 중도(中道)와 사성제(四聖諦)이다.
⑤ 부처님의 최초 가르침은 당시 지방 장자의 아들 야사와 그의 친구들에게 이루어졌다.

해설 : 부처님의 최초 가르침은 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중도와 사성제가 설법된 것이며 이를 초전법륜이라고 한다. 이 다섯 수행자는 불교 최초의 스님이 됨으로 이때 삼보가 갖추어졌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정답 : 1. ④ 2. ③ 3. ③ 4. ④ 5. ⑤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초파일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등 설치 할 인 — 설치 스카이 5월 15일까지 할인 /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행사 중

사월초파일 제 품 할 인 —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일부품목은 제외됩니다 85,000원

- 보시 용품 염줄
- 각종 연등 탄생불 관욕단
- 각종 미니 만월등 100개 ····· 140,000원
- 만월등 사업등
- 연잎 리본
- 방수전선 전구엘리드국산
- 등 승강기 설치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⑧ 천수경 ①



▶한줄 요약
〈천수경〉은 관세음보살경이다. 관세음보살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원하라는 것이다.

천수경을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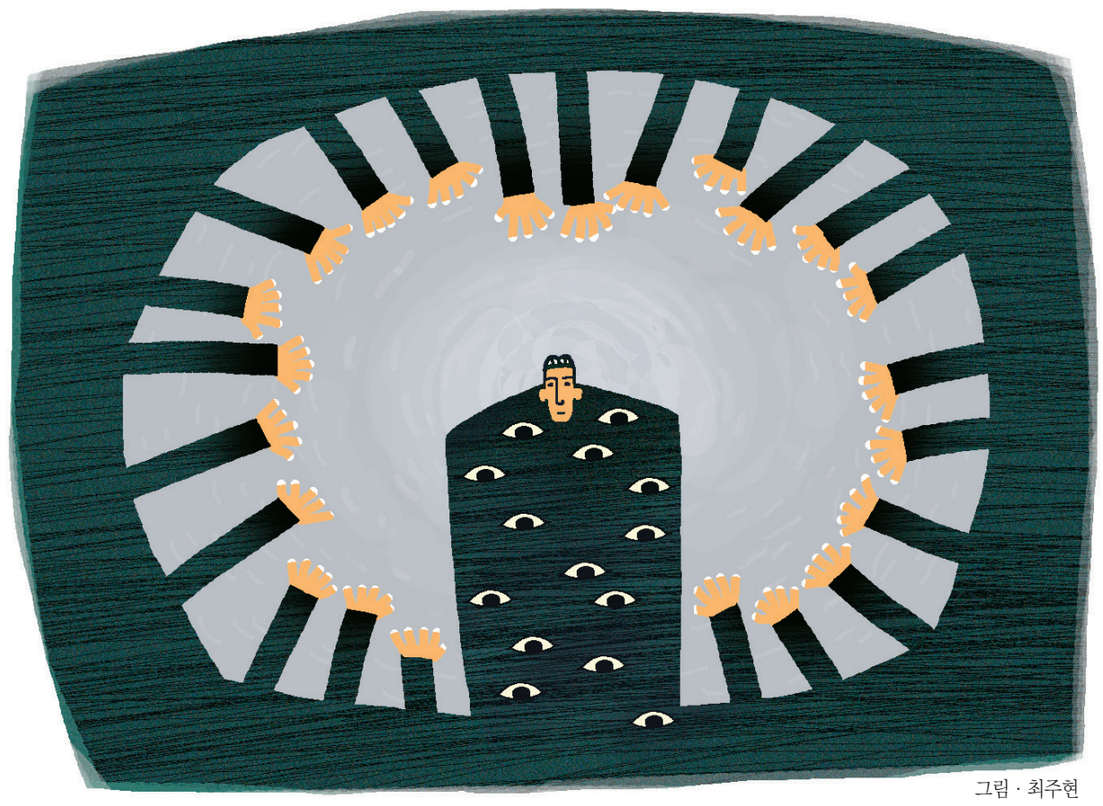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하루키 씨, 제목 좀 빌릴게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읽고 그 제목을 흉내 내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이제 막 그의 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에세이는 참 솔직하고 담담하게 독자들을 상대로 말을 건네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느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전세계 모든 독자들이 그의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수경〉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천수경〉! 내가 이 경에 대해서 무엇을 새삼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경이 읽힌 횟수는 어마 무시할 테고, 지금 이 시간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자들이 집에서 절에서 〈천수경〉을 봉독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찰마다 이 경을 강의하는 강좌도 부지기수요,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고 심도 있게 설명한 해설서도 많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경전을 소개하려니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하루키의 에세이를 막 읽은 터라 이 제목을 빌려서 써보자 생각하니 의외로 글을 쉽게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네요.

여전히 수많은 불자들은 〈천수경〉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하고 있고, 그냥 읽으면서 가피를 입겠다고 합니다. 절에 오래 다닌 불자님들은 이 〈천수경〉을 눈 감고서 술술 욉니다. 스님의 목탁소리에 맞춰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로 시작하는데, 법당 안 열기가 슬슬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열기는 바야흐로 "나모라 다나다나 야야 나막알야~"에 이르러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법당 안의 불자는 둘로 나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눈감고 술술 욀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다 외지 못하면 살짝 주눅이 듭니다. 신심이 크고 깊지 못한 것이 못내 부끄럽기도 합니다. 은근 샘이 나기도 해서 법회를 마친 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줄줄 외던 옆자리 불자님에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묻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체로 "그렇게 시시콜콜 뜻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가피를 입는다 생각하면서 자꾸 외우세요"라는 말!

대체 〈천수경〉은 뭘 말하는 경일까요? 어쩌자고 한국의 불자들은 그토록 열심히 〈천수경〉을 외는 것일까요?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수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경〉을 말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를 솔직하게 풀어보려 하니까요.

눈이 천 개나 되신다니

무릎 세우고 두 손 모아
천수관음 앞에 비옵나이다.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
하나를 내어 하나를 덜기를,
둘 다 없는 이 몸이오니
하나만이라도 주시옵소서.
아아! 나에게 주시오면
그 자비 얼마나 클 것인가.

상상해 보세요. 관세음보살님에게는 손이 천 개, 눈이 천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신라 땅의 어떤 어머니에게 다섯 살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한 시절도 아니고, 그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을까요?

그때 떠오른 분이 바로 눈이 천 개나 되는 관세음보살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달려간 곳이 분황사이고, 그 절 북쪽 벽에 그려진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앞으로 데려간 아이에게 이렇게 빌라고 시켰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보살님께는 손과 눈이 천 개나 있는데 제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딱 하나만 나눠 주세요.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제발 제게 눈을 하나만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서 가장 많이 봉독된 경전
정작 천수경 의미 아는 불자 적어
천수경, 관세음보살에 기원하는 經

어머니와 아이의 기도가 통했던지 〈삼국유사〉에서는 아이가 앞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경입니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마다 1400년 전쯤 앞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던 어머니와 아이가 떠오릅니다. 과연 누가 이보다 더 간절하게 바랄 수 있을까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면 자애로운 어머니, 한없이 품을 내주는 무한한 사랑을 자연스레 연상합니다. 과연 〈천수경〉에서도 이렇게 한없이 따사롭고 무한정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이뤄지게 해주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이 그려질까요? 〈천수경〉을 가만 가만 읽어보면 뜻밖의 문장에 놀랄 것입니다.

"파워"라는 대답

지난 회차에 소개한 '관세음보살보문품'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분의 이름은 무슨 뜻이고, 어떤 힘을 지니고 있으며, 어떨 때 기도하면 가피를 내리는지…. 이런 설명이 담겨 있는 경이었지요. 그러니 보문품을 읽을 때면 "아, 이런 것이 관세음보살 신앙이로구나"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천수경〉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관세음보살이 어떤 존재인지 파악했으니 그 분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지금 머물며 기도하고 있는 그곳으로 관세음보살을 초대해야겠지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려니 일단 내 입부터 정화해야 마땅하겠고요.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곳으로 오실 때, 행여 다른 신적인 존재들이 관세음보살의 위력에 놀라 떨거나 주눅 들거나 달아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키기도 해야 합니다.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이라는 문장이 그것입니다. 안위(安慰)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제신(諸神) 즉 여러 신들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관세음보살님을 불러서 가피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것이요, 그 분이 오시면 괜히 여러 신들이 쫄지 마시고 마음 편히 있으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불교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위력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 부탄을 여행했을 때 현지인 가이드와 나눈 대화가 늘 머릿속에 맴돕니다. 나는 그 가이드에게 내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색 여행지인 부탄을 관광하러 온 여행객의 입장으로 그의 안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부탄 박물관에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상을 감상하고 있을 때였지요. 낯선 땅, 히말라야 산자락의 아담하고 조용한 박물관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을 넋 놓고 감상하고 있었는데, 내 옆으로 가이드가 오더니 말했습니다.

"멋지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밖에요. 그런데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척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와, 이게 모두 몇 개예요? 어떻게 손이랑 눈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요?"

가이드는 0.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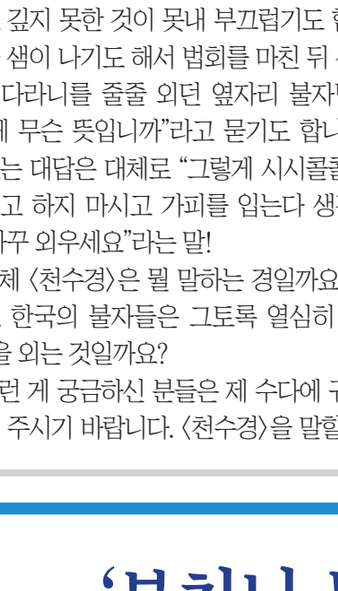
잠시 찡~ 현기증이 왔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불교를 익히며 관세음보살을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자비(慈悲)의 화신으로 마음속에 품고 이때까지 지내왔는데, 히말라야 산자락의 부탄 사람은 그걸 '파워'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포근하고 너그러워서 유약하게까지 느껴졌고, 어릴 때 투정부리면 결국은 내 말을 다 들어주었던 어머니처럼, 빌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만큼 나를 향해 활짝 두 팔을 벌린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뤄줄 수 있을까요? 그가 지닌 힘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 힘이라는 것이 새삼스러웠고, 저 막강한 힘을 가진 관세음보살이라면 내가 바라는 것은 정말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이니 뭐든 빌면 되겠지요? 앞서 보문품에서는 현실적으로 직면한 재난이나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소망이나 무거운 번뇌에서 도와달라고 빌면 그 소망을 들어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천수경〉에서는 또 어떨까요? 〈천수경〉에서도 그런 걸 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가정이 평화롭고 배우자와 자식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안녕을 간절히 비는 마음에서 기도를 올릴 때 늘 〈천수경〉과 그 속에 담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간절하고 정성스레 외지 않았던가요? 〈천수경〉을 가만 가만 읽어보면 뜻밖의 문장에 놀라실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새해 기운을 얻어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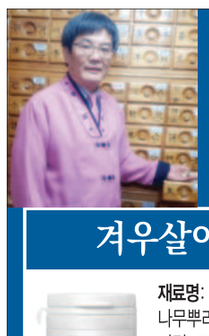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누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대행 스님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똑바로 중도에서 보라

어떻게 관하는 것인지요

질문 유튜브에서 큰스님 영상 법문을 보고 마음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체를 관하라 하시는데 어떤 일체를 어떻게 관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일체라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찰나찰나 화해 가면서 돌아가고 있으니 일체지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듯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일체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일체' 하죠. 그러니 지금 '일체 모두 놓고 관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나더러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네가 형성시켰고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네가 나를 운전해 왔어. 진화시켰어. 형성시켰어. 그러니 나를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것도 너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거 그 속에 닥쳐오는 대로 놓는 것이 관하는 거죠. 그래서 맡겨 놓는다면, 앉으나 서나 바로 도량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앉은 자리에 자부처는 있는 것입니다. 자부처부터 알아야 바로 우리 마음속의 그 모든 의식 자체 생명들이 같이 화합을 해 주게 됩니다. 내 국토부터 다룰 줄 알아야, 바로 보살로 화해서 남의 국토도 내 국토와 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화두예요. 그런데 그 화두마저도 공했다 했거늘,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했거늘 거기에다가 또 남의 화두까지 받아 가지고 '이게 뭣고' 하고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십 년, 백 년을 가도 지금 시대에는 아니 된다 이거죠. 왜냐? 전자에는 그게 씨가 먹혔지만 지금은 모두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천체물리학이니 과학이니 또 지리학이니 의학이니 천문학이니 이런 것이 전체, 머리에 알음알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씨가 먹히질 않죠. 밥 한 그릇 남이 준 거를 들고 '이 뭣고?' 하고선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도 공했고 그것도 공했거늘 어찌 그거를 들고 끊어질까 봐 애를 쓰느냐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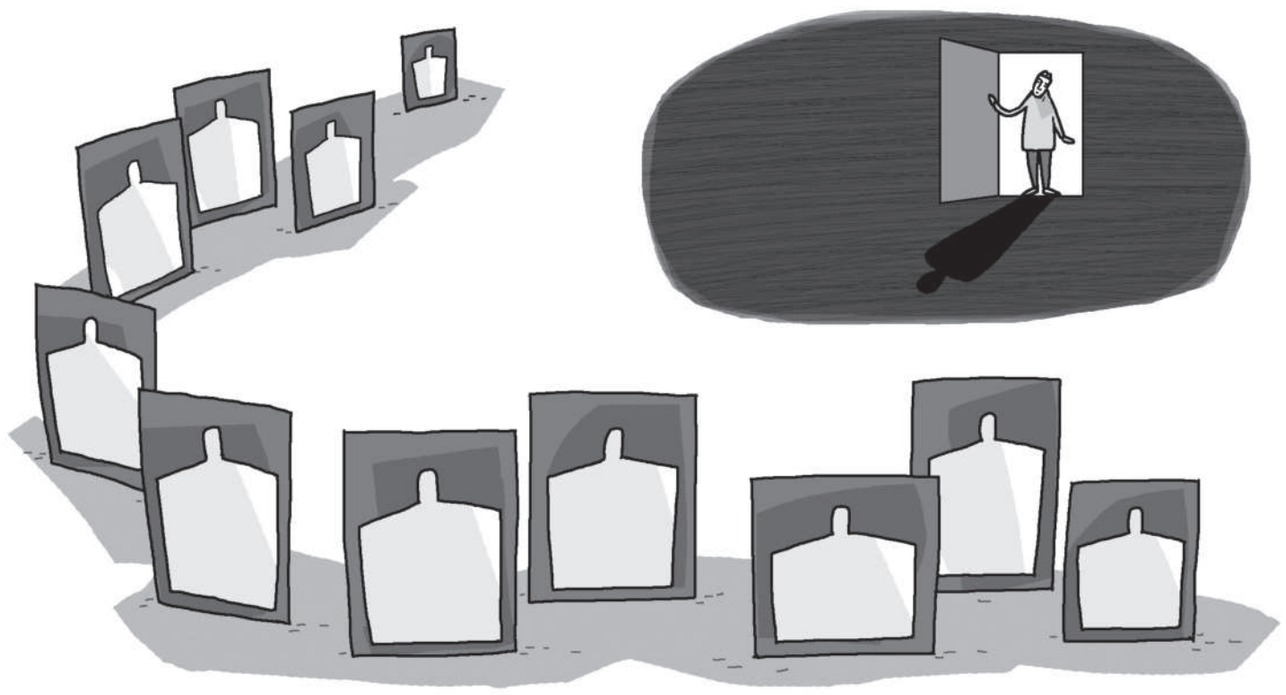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또 좌선을 할 때는 내 안으로 관한다면 그게 같이 들리지마는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좌선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안 하느니만 못하다. 왜냐? 지금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모든 소용돌이가 찰나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구가 돌아가고 혹성이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고 사람도 돌아가고 사람의 마음도 돌아가고 고정됨이 없는데, 좌선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하루 8시간을 앉았다 하더라도 단 5분 한 것만 못하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좌선을 할 때에 관하라니까 화두를 들고 그것이 끊어질까 봐 애를 쓰고 '이게 뭣고?' 하는 게 관하는 건 줄 안다 이겁니다. 새 물이 들어오면서 헌 물은 배출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대에, 만약에 그 물을 그냥 두고 있다면 그 썩은 물을 그냥 우리가 쓰는 거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죠. 선지식들이 "위로 눈을 뜨지도 말고 아래로 내려보지도 말고 코끝을 내려다보고 아주 정연하게 관하라." 이런 말을 했거늘, 그것은 무슨 소리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내다봐라. 그리고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바로 중도에서 중용에서,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똑바로 중도에서 보라 이런 소리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해요. 요새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혼란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남의 소리나 듣고. 부처님이, 석가세존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석가세존의 몸뚱이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진짜 믿는 것은 그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서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을 보고 끄달리지 말고 그 마음을 뚫어보기 위해서 내 마음부터 뚫어봐라 이 소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나를, 나라는 존재를 버려라. 버리는 게 아니라 맡겨 놔라. 아집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 여러분이 여직껏 살면서도 고정되게 보신 게 있습니까? 들으신 게 있습니까? 또 말하는 게 있습니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먹는 것이 고정됩니까? 하나도 고정된 게 없죠. 그런데 자동적으로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고, 저 사람 만날 땐 저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니 그건 무슨 연고냐 이겁니다. 그러니 나라는 게 어딨는가? 누구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는 없는 게 부처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관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게 관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면 나를 어떻게 발견을 하며 내 습을 어떻게 녹일 수 있으며, 내가 생동력 있게 모든 생물들과, 즉 사생과 더불어, 우주와 더불어 대천세계를 막론해 놓고, 내 몸뚱이 집과 대천세계의 집과 도량이 둘이 아닌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게 되는 도리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자기부터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진짜로 일차적으론 믿어야 한다,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둘째는 모든 일체를 거기서 해 나가니까 거기에 믿고 맡겨 놔라. 셋째, 거기서밖엔 일체를 할 수 없으니까 다가오는 대로, 아프면 의사가 돼 주실 거고, 즉 약사가 된다 이겁니다. 가난하면 관세음이 돼 줄 거고. 그래서 간략하게 말한다면 부처님의 마음, 한 마음 안에서 그 모든 내 몸뚱이에 있는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이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니, 털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고 들면서 모든 중생들을 건진다 이겁니다, 생사에 뛰어들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생사에 뛰어들듯이.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끄달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 자기한테 다 맡겨 놓고 믿는다면, 지켜본다면, 거기에서 바로 하나하나 오는 대로 체험이 된다면 바로 그 열매를 먹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두려움 극복하고 싶어요

질문 인간이라면 누구나 육신에 대한 착을 갖고 있어 갖가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떠한 병이 찾아오더라도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채찍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마음의 근본이 뿌리라면 싹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뭐든지 닥치는 대로 놓고 간다면 그대로 참선이다

☞ 19면에서 계속

은 몸입니다. 이 싹은 뿌리로 인해서 전체가 삽니다. 뿌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 모두를 갖다 흡수해서 에너지를 올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이 몸 자체는 바로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 몸에 정맥과 동맥이 서로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뿌리를 믿어서 '뿌리야, 너 요만큼 에너지를 흡수할 거를 이만큼 좀 흡수해서 올려보내 다오.' 하는 거나 진배없는 겁니다. 용도를 너무 잘 아니까 말입니다. 싹이 생각하는 거를 뿌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몸뚱이 하나가 턱 쓰러졌다 이런다면 그냥 발광을 합니다. 허허허. 침착하게 '네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살리는 것도 너, 죽이는 것도 너다. 죽을 때가 됐으면 애나 어른이나 다 죽는 거지마는, 죽게 하는 것도 너고 살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죽는 거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한데 그냥, 그 빈손과 빈발이 그냥, 송두리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야 온몸의 모든 의식들을 작용케 해서 낫게 할 텐데, 이거는 뭐, 금방 '아이고, 주인공!' 이랬다가 금방 '아이구, 이거 어떡하나?' 하고 저 누구 부르고 누구 찾고, 허,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음이 있다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만약 여러분한테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한테 가서 청하지 않고 일이 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잘못됨과 잘됨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일이 됩니까? 밥을 짓지 않고 생쌀로 놓아두면 그냥 밥이 됩니까? 쌀을 넣고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그냥 밥통은 지키고만 있는 거죠, 그냥. 허허허. 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건수가 와야 할 텐데 건수가 안 오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생각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송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데 마음을 내기 이전의 선장은, 마음의 선장은 나쁘고 좋은 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은 너무나 잘 알죠. 이걸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해서 좋고,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장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장자라고 합니다. 그래 선장이 돼 가지고 그 모든 의식들을 한데 합쳐서, 항상 이렇게 포함해서 하나로 굴린다면, 주인공으로 하나로 굴린다면 그 자생 중생들이 전부 보살로서 화하고 지장으로, 약사로 화하고 지신으로, 용신으로 화하고 모두, 아주 일체 아니 되는 것 없이 화합니다. 화해서 바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속에 둘이 아니게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지면 그대로 그냥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응신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그 속에만 들어가면 그 모습으로 화한다는 거죠.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가 되고,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 곤충 속에 들어가면 곤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게 없다. 그러니 나 아님이 없다.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부처니라." 이런 겁니다.

이 마음은 무한이에요. 지금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그것이 원자에서 입자로 인해서 소립자도 되고, 분자도 되고, 원자로 다시 되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시쳇말로 용어를 변경해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잘 쓰십시오. '나는 그냥 중생이어서 모자라니까 내가 힘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우주와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고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쓸 수 있는 자원이 나한테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 끌어 쓸 수가 있는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지수화풍이 없으면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허나 내가 지수화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모든 게 지수화풍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수화풍으로 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모두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이 그냥 자동적으로 통신이 되고 뜻으로다 통신이 돼서 만물이 전부, 개개인이 짹짹짹짹만 해도 요건 무슨 소리구나 하고서 전부 따라옵니다. 모이자 하면 모이고 흩어지자 하면 흩어지고, 먹을 것이 저기 있으니 가자 하면은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한계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지금 마음을 그렇게 넓게 쓰면서 그 넓게 쓰는 마음도…,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죠. 나쁜 게 들어왔을 때는 '나쁜 게 들어오게 한 것도 너니까 좋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거기 놓아라. 또 잘돼서 들어오는 건 '아, 참 감사하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거기 놓아라. 그래야 컴퓨터에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로이 자꾸 나온다 하고 말입니다.

나를 이끌어가지고 가는 것도 너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거 그 속에다
닥쳐오는 대로 놓는 것이 관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다 환상이 보이는데

질문 참선을 한다고 앉아 있다 보면 가끔씩 어떤 환상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도 그냥 놓고 가면 되는 것이지요?

답변 무엇이 보이든지, 어떠한 물체가 보이든지 그것은 다 제자리에다 되놔야 됩니다. 당신 자체가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거기다 되놓고, 그 원리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것을 침착하게 실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참선입니다. 어떤 게 나오든지, 부처를 보든지, 중생을 보든지, 미치광이를 보든지 모든 것을 제자리에다 놓으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대로 뭐든지 그대로 놓고 간다면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참선 아님이 없어요. 꿈이 생시며 생시가 꿈이면서, 온갖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잡념이자 그대로 참선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절에서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팥죽이 부글부글 끓어서 팥죽 방울이 올라오니까 주걱으로 젓다가 말고, "요것도 문수 저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쳤더랍니다. 그런데 그 '문수'라고 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걱으로 팥죽 솥의 팥죽 방울을 쳤다고만 생각하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이것도 주인공에서, 저것도 주인공에서, 요것도 주인공에서' 하고 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팥죽 솥에서 주걱으로 그렇게 쳤다는 것은, 즉 팥죽 솥은 자기 몸뚱이요, 그 팥죽이 끓어 방울방울 나오는 거는 속에 들어 있는 수십억의 의식들인데 그것을 놓는다는 뜻이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즉 말하자면 악업이든 선업이든 자기가 짓고 자기가 융합이 돼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를 달리 보면 안 되거든요. 환상으로 보이거나, 원으로 보이거나, 부처로 보이거나, 미인으로 보이거나, 목신으로 보이거나, 무정물로 보이거나 어떠한 걸로 보이든지 다 한 팥죽 솥에서 방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내 몸뚱이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자리에다가 다시 놓는다면, 놓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한다면 그것이 진짜 참선이지요.

항상 말씀드리죠. 카세트테이프에 녹음됐던 거를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는지를요. 녹음된 그 카세트테이프는 다시 녹음을 해야만이 앞서 넣은 녹음이 다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팥죽 그릇 얘기 했듯이 '내 몸뚱이가 팥죽 그릇이요, 그 속에서 악업 선업으로 인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그 팥죽 방울과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되놓는다면 카세트테이프에 녹음된 것이 다 없어지듯 한다 이겁니다.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질문 저는 남편과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나를 나무라고 자식들은 저 잘났다고 제 뜻대로만 하고 제 말엔 신경도 안 써요. 제가 잘못 살았나 봅니다. 기대는 만큼 서운함이 너무 커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답변 우리가 부부지간에 살고 자식지간에 살아도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도 있거니와, 남편에게 '아이그, 나는 평생 살아도 왜 남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없어?' 하고 기대한다면 그것도 다 욕심입니다. 또 부인이 못마땅해서 남편이 생각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남남끼리 만나고 얼마나 살다가 그 모습을 벗으려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을 가지고 온통 나쁘니 좋으니 이렇게 해야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 욕심입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돈을 더 벌려고 보증 서다가 잘못되는 사람이 많고, 돈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하다가 본전도 못 추리는 사람이 많고, 이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병고도 생기거든요.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스려서 거기 놔라 이겁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살고 계시지 딴 분이 와서 이 세상을 살아 줍니까? 살아 드리는 게 없습니다. 대신 먹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고 똥 누고 아프고 죽고, 이러는 것도 대신해 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 가정에서 왜, '부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거를 자기한테다, 자기가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그 이치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름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허공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산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할지라도 그 고깃덩어릴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 작업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그마한 거든 큰 거든 어떠한 문제가 나와서 내 앞에 착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마시고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고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체험하시고, 이렇게 해 보십시오. 모두를 거기다가 놓고, 모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다 거기서만이 하는 거니까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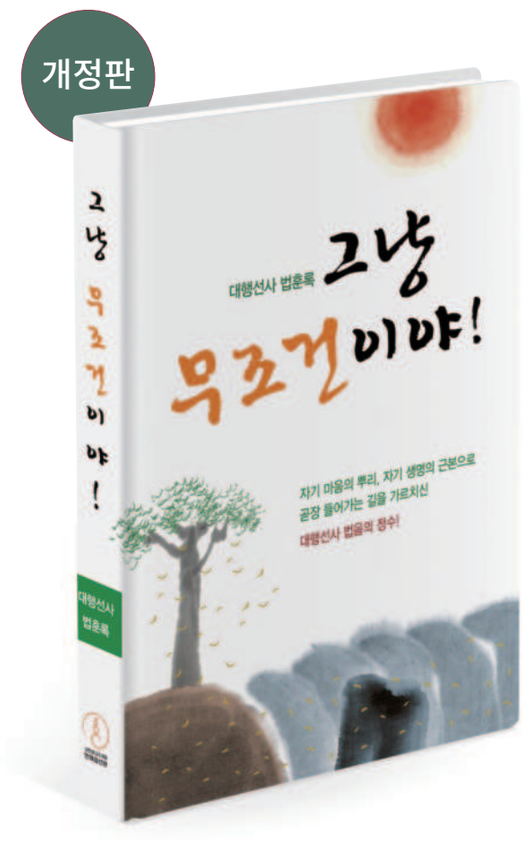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 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 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⑧ 교만함 내려놓으려면

'내 잣대' 아닌 '생명'으로 만납시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 도반들을 만났다. 코로나19 시기 시작된 온라인 윤독법회가 어느덧 4년째를 맞고 있다. 1부 30분간은 108배를 모시고, 2부 30분간은 한탑 스님의 〈금강경법문〉 책자를 함께 윤독하며 법담을 나눈다. SNS에서 다양한 인연을 맺고,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면서 부처님의 지혜법문을 공유해야겠다는 원력이 더욱 다져졌다. 종교가 없거나 막연하게 불교에 호의를 가진 분들과 108배를 통해 공부의 연을 맺고, 자연스럽게 금강경 공부로 인례를 했다.

어느 날 〈금강경법문〉 공부를 마친 후에 진서님(가명)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저희 회사는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예요. 회사소속 내부 직원들과 외주업체에서 온 분들이 함께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저의 상사께서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이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만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 번 다툼이 있었어요.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처리가 능률적이지 못하다고 상부에 문제제기를 한 결과,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거기에 감정이 상한 상사는 제게 곱지 않은 말투와 시선을 보내고 있어서 한 공간에서 일하기가 많이 불편하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제 마음도 무거워요."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나의 습관과 같기를 원하는 데서 늘 시비가 발생한다. 나의 기준과 익숙함으로 사람을 대하니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은 행복하게 살자는 취지에서 만든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도 생명은 여전히 존귀하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행동을 나무라는 것을 넘어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다.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규범이 먼저인 것이다.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내는 밑변에는 '난 적어도 당신과 같은 행동은 안 한다' '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올바른 인간이다'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교만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의 사람을 만나거든 '혹시 내 잣대가 먼저인가?'를 떠올려보자. 나는 틀리다고 지적하는 저쪽의 행동이 정작 그 당사자에게는 아주 옳은 행동일 수 있다.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어디서 누굴 만나든 나의 평

일처리 능률로 생긴 상사와 갈등
결국엔 내 판단이 더 적합했지만
상대방 어떻게 대했는지가 중요

가 기준이나 잣대로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만나야 진정한 만남이 이뤄지고, 그 사람의 마음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원칙에 맞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의 꺼져가는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져 묻지 않고 기꺼이 눈감아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이면에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커다란 생명의 흐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 의견만을 주장하는 교만함은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나와 상대를 둘로 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은 항복받아야 한다고 금강경에서 강조하시죠. 누군가를 지적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순간의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이에요. 아무리 교양있는 말투로 가린다 한 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밑변에 있으면, 그 마음을 눈빛과 몸짓으로 전달받은 상대방이 내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요. 진정한 개선과 수정은 상대에 대한 인정과 긍정 속에서 이뤄진다고 믿어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부처님으로 대하고 공경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한탑 스님께서는 〈금강경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약 마땅치 않은 현실을 자꾸 만나고 있다면, 내가 먼저 마땅치 않은 생각을 가진 결과로서 그런 현상이 내 앞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땅치 않은 현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마음속의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내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상 세계가 바뀔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허망한 생각을 모두 다 내버리고, 본래 그것밖에 없는 절대생명, 부처님생명만을 인정합니다. 우리 눈에는 나와 남 사이에 확고부동한 울타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처님의 눈에는 모두가 무한절대 부처님생명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대립이나 생존경쟁에서 비롯된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부처님생명을 못 보는 걸까요? 무명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두려움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생명을 살고 있는 참생명 자리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진실 자체를 깨달으신 분으로 지혜가 밝은 광명 자체입니다. 제가 보고 있던 것을 부정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⑭ 알레르기 비염

봄철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 올바른 관리 필수

알레르기 비염이란?

알레르기 비염은 일반인 중 약 16%가 있는 질환으로 아주 흔한 만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코막힘, 콧물, 재채기, 코간지러움증이 주증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소아에서부터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며 심한 경우에는 눈부심, 과도한 눈물, 두통 등의 증상이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잘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성부비동염(축농증), 천식 등 동반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증상을 일으키는 유발 물질을 알레르기 항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동물의 털 등이 흔한 알레르기 항원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검사 방법은?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본인이 감작된 알레르기 항원을 아는 것이 효과적인 관리에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검사로는 피부단자검사가 대표적인 검사이며 혈액내 특이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먼지 진드기에 대해 감작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심한 증상이 있다면 약물요법에 더해 집먼지 진드기 차단 커버를 사용하거나 카페트나 천으로 된 소파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항원에 대해 감작되어 있고 이에 대한 증상이 심한 환자는 봄철에 등산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감작된 알레르기 항원이라고 모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당한 증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봄철 증상이 심해질까?

우리나라의 알레르기 비염에서 꽃가루 알레르기는 두 번째로 흔한 항원입니다. 봄철이 되면 꽃가루가 날리게 되며 여기에 감작되어 있는 환자들은 불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나무 꽃가루는 봄의 초순~중순, 잔디 꽃가루는 봄의 중순~말순, 잡초 꽃가루는 봄의 말순~초여름에 가장 많이 날립니다. 따라서 본인이 감작된 알레르기 항원이 뭔지 알고, 그에 맞는 증상이 있다면 해당 시기에는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먹어야 완치 가능하나요?

알레르기 비염은 만성질환입니다. 면역반응 이상으로 인한 증상이고 약물 요법 증상을 조절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의 주증상은 코막힘, 콧물, 재채기, 코간지러움증이 있다. 사진=unsplash

일반인 중 16% 있는 흔한 만성 질환
본인 감작된 항원 아는 것이 효과적
회피요법·약물요법 적절히 병행해야

을 유발하는 이상면역반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염은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관리'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 잘 조절할 수 있으며 약물요법이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치료방법입니다. 그 중 코에 분무하는 스프레이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약물 치료입니다. 만약 봄철에만 증상이 있다면 해당기간에만 집중 치료하고 나머지 기간은 특별히 치료를 안 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다른 방법은?

환자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회피요법의 경우는 한계가 있어, 단일 치료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약물 치료와 병행합니다. 증상이 약한 비염이나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불편감이 큰 시기만 약물을 복용하지만, 일년 내내 증상이 심한 환자인 경우는 코에 분무하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주치료로 사용합니다. 약물치료 외에는 면역반응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면역치료가 있습니다. 면역치료는 보통 3년이란 기간이 소요되며 증상이 경감되고 필요한 약물치료 요구량이 줄어들 수 있으나, 알레르기 비염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관리 위한 치료는?

알레르기 비염과 그 치료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제일 효과가 큰데 이 스프레이를 가끔만 사용하면 효과가 적습니다. 따라서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사용시 매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프레이를 꾸준히 사용시 큰 증상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알고 적절한 회피요법을 시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약물로 조절이 어려운 환자에서 적응증이 된다면 면역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으나 그 전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김진엽
동국대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5년 간 안양시 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 심리 이해

신 청 안 내

수 강 료 : 무료교육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대 상 :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 (선착순 35명)

기 간 : 5월 2일 ~ 6월 20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장 소 : 한마음선원 경내 한마음과학원 3층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문 의 : 031-470-3200, 3198 매주 월요일 휴무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hansi.org)에서 신청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전법 일기

봄날에 그리는 친구 모든 인연이 정겹다

〈상윳다니까야〉 절반경은 널리 인용되는 친구에 대한 짧은 경전이다. 아마도 경전이 설해진 날은 지금처럼 봄꽃이 완연하게 흐드러진 멋진 날이 아니었을까. 아난 스님이 즐겁고 활기찬 목소리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을 것이다.

"스승님! 좋은 친구만 사귀어도 깨달음의 절반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난 스님! 내 생각에는 좋은 친구만 사귀어도 깨달음의 절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스승님 곁에 저 같은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봄날에 꽃구경도 모셔다드리고 커피도 사다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수행도 이런 좋은 친구가 있을 때 더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네가 절반의 깨달음을 줬으니 나머지 절반은 가섭이나 사리불한테 가서 얻어야겠구만. 자네 말이 맞지. 자네 덕분에 꽃구경도 잘하고 호강하고 있어. 그런데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너와 나 둘 사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야. 좋은 친구의 친구 역시 또 좋은 친구가 되어 나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고,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주며,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겠지. 제자여! 결국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은 결국 좋은 대중(大衆)을 이루는 것이고, 좋은 대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근본이다 이 말일세."

"스승님!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깨달음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아마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경전엔 근엄한 대화로 남아있지만, 속에 담긴 마음은 저렇게 정겨웠을 것 같다.

절반경을 접할 때마다 고마운 얼굴이 떠오른다. 나는 마흔이 넘는 나이까지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다. 운전을 싫어하거나, 신체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 '차 없는 스님'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궁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외부법회나 법문이 있을 때면 늘 불평하지 않고 차를 태워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자동차를 가지는 수고로움과 길을 찾는 번거로움에서 늘 조금씩 비껴나 있을 수 있었다.

내게 없는 운전면허와 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기꺼이 나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나의 불편을 해결해주었으므로, 마땅히 나는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하고, 좌복 위에 앉아 하루 열 시간씩 참선을 한다. 모두가 저마다의 능력과 방식으로 함께 수행을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출가 이후 만난 모든 인연도 내게는 소중한 친구들이다. 어린이 법회의 아이들과 자모님들, 범어사불교대학 학생과 대불련의 맑은 청년들, 정답던 포교사님들과 노보살님들 한분 한분이 나와 함께 부처님 법을 닦아가는 청정대중이었음을 또 한 번 생각해본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로 법당 한가운데 서서 차가운 입김으로 촛불을 사른 겨울이 지나가고, 오늘은 법당문을 나서면 바람결에 꽃잎이 춤춘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봄날이므로, 지는 꽃마저도 아름답구나.



범어사 전 포교국장 눌은 스님



송마나의 **시절인연**

피어있는 꽃, 마음 속에 심어라

화들짝 놀란 벚꽃이 와르르 깨어나 4월의 빛을 거리에 흩뿌린다. 오종종한 개나리꽃이 반짝반짝 노란별이 되어 담장 밑을 밝힌다. 중량감을 어찌할 수 없는 목련꽃은 주먹만한 하얀 등불을 처마 위 높이 걸어둔다. 젊은이들은 무거운 코트를 벗어던지고 밝고 경쾌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한다. 봄, 봄, 봄이 넘쳐흐르고 있다.

'사시장춘(四時長春)'이라는 말이 그냥 생겨났을 리 없다. 봄같이 좋은 때가 어디 있으랴. 겨울을 뚫고 꽃들이 활짝 피어난 자연의 봄, 싱싱한 젊음이 들끓는 인생의 봄, 이보다 좋은 봄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봄과 인생의 봄 외에 또 하나의 봄을 덧붙이고 싶다. 바로 정신의 봄이다.

봄(見)을 가져야만 참다운 봄을 가진 것 아닐까?

당나라 때, 〈금강경〉 박사라고 자부했던 덕산(德山)이 점심을 먹으러 길가 떡집으로 들어갔다. 떡 파는 할머니가 "당신은 점심(點心)을 먹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요?"라고 물었다. 덕산은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부끄러워 유명하다는 용담(龍潭)에 살고 있는 숭신(崇信) 스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찾아간 그곳에는 개울물이 졸졸 흐르고, 어떤 남루한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용담, 용담하고 사람들이 떠들어 굉장한 곳인 줄 알고 찾아와 보니 큰 계곡도 아니고 용이 있는 것도 아니로구나"라고 덕산은 중얼거렸다.



그림 · 최주현

그러자 노인이 일어서서 말했다. "네가 찾아온 이곳이 용담이요, 네 앞에 있는 내가 용이로다."

덕산은 또 한 번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했다. 천하가 담이요, 모든 만물이 용인데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일념으로 숭신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덕산은 밤늦도록 스님의 강의를 들은 후 자기 암자로 가려고 밖으로 나왔다. 너무 깜깜해서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스승께 촛불 하나 켜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줬다. 촛불을 들고 길을 찾아가려는데 스님이 훅, 촛불을 꺼버렸다. 덕산은 당황했지만 어찌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세상이 차차 밝아졌다. 멀리 별빛이 보이고, 산등성이가 보이고, 시냇물이 보이고, 길이 보였다. 덕산이 견성(見性)해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촛불은 끌 수 있지만 진리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산수유, 개나리, 벚꽃이 시들지 않고 영원히 피어있겠는가. 아름다운 청춘이 늙지 않고 영원하겠는가. 꽃 피는 봄, 인생의 봄은 촛불을 불면 꺼지듯 이내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면 어떻게 봄을 영원히 붙들어 둘 수 있을까. 그것은 밖에 피어있는 꽃을 마음속으로 옮겨 심는 것이다. 밖에 있는 꽃이 시들어도 마음 안에 있는 꽃은 시들지 않기 때문이다.

흘러가는 청춘을 마음 안에 옮겨 두면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의 청춘은 사라지지 않는다. 즉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눈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신다. 나뭇가지에 눈이 트이듯, 마음의 눈이 트이면 영원한 봄을 볼(見) 수 있다. 봄이 봄을 만나는 법열이다. 이것이 참 봄(見性)이요, 진리(眞理)의 봄이다. 〈작가〉

기자칼럼

제주4·3에 돌아본 여순10·19

지난 4월 3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한 제주4·3사건 희생자추모재가 봉행됐다. 3만여 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그들을 보호하다 화를 입은 제주불교계의 명예회복을 발원하는 추모재 현장에서 문득 기자의 고향에서 발생한 여수·순천10·19사건이 떠올랐다.

1948년 발생한 여수·순천10·19사건은 당시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군부대가 4·3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만여 명의 시민이 희생된 비극이다. 전개과정도 제주4·3과 유사하다. 그날 여수와 순천에서도 제주와 마찬가지로 불교계의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

2005년 조계종이 발간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Ⅲ〉에서는 6·25전쟁 전후로 전남에서 총 43곳의 사찰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전쟁 전에 피해를 입은 사찰은 대부분 10·19사건으로 전소 및 훼손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광양 상백운암과 보성 대원사, 하동 칠불사, 함양 영원사 등 지리산에 인접한 사찰들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자료를 더 찾아봤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못내 아쉬울 뿐이었다.

반면 4·3사건 당시 불교계 피해를 다룬 자료는 많았다. 제주불교계가 세미나를 수차례 열고 4·3사건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구체적인 피해 사례, 스님들의 희생과정, 피해를 입은 시기 등을 조사해 자료로 축적해온 덕분이다.

호남불교계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재와 특별법 제정을 지지하는 활동을 펼치긴 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학술적 움직임은 찾기 어려웠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10·19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호남불교계의 명예회복 담론은 형성되기 어렵다. 이대로라면 10·19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불교계의 아픔이 잊힐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호남불교의 명예회복을 위해 10·19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스님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호남불교도 제주불교처럼 스스로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민우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전재산 다 팔았지만 아들 혈액암치료비 막막

몽골 아나르군, 림프종혈액암에 장기치료 불가피
미납된 병원비만 6천만원…후원받기도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불교 숫자, 삶에서도 써보자

현불논단



무상 법현 스님
열린선원 선원장

일(一), 십(十), 입(廿), 삽(卅), 십(卌)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한자를 아는가? 숫자를 통해 여러 가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나라는 한자 일(一)이 뚫다는 뜻인 곤(丨)을 만나면 '열 십(十)'이 된다. 열에 열을 더하면 '스물 입(廿)'이고, 열을 더 더하면 '서른 삽(卅)'이 된다. 게다가 열을 더 더 하면 '마흔 십( )'이 된다. 열에 열을 곱하면 '온 백(百)'이 되고, 열을 더 곱하면 '즈믄 천(千)'이 된다. 온은 모두라는 뜻에서 백퍼센트라는 말이 된다. 천은 즈믄이라고 한글로 부르기도 한다.

'서른 삽'은 아는 이들은 알고 모르는 이들은 잘 몰라서 헷갈리기도 한다. 행선축원(行禪祝願)이라는 것을 새벽예불에 하는데 이 때 '원아관음 삽이응(願我觀音卅二應)'이라는 글을 출판사 가 삼이응(三二應)이라 잘못 쓰기도 한다. 삼이(三二)를 보고 삼이응(三二應)이라 읽어도 문제없어 보인다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삽이응'을 '삼이응'이라고 하면 그 결과는 6응신이 되어버린다.

새벽예불 가운데 하나인 향수해례(香水海禮)를 살피면 바로 알 수 있다. '서건사칠(西乾四七) 당토이삼(唐土二三)'의 참선종 조사가 나온다. 서천축 곧 인도의 가섭부터 달마까지 28명을 구구단으로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토 곧 중국 당나라에 간 달마부터 혜능까지 여섯 명을 나타낸다. 삽이응이라 하면 32가지로 나타나는 관음

서른 의미 '卅', 잘못 편집되기도
'卅二應' 관음보살 32응화신 의미
현장에서 적확하게 읽혀야 '화두'

보살의 응화신(應化身)이다. 본디 나옹화상의 발원문인데 현실적인 기복(祈福) 축원으로 하는 것은 아쉽다.

숫자 하나를 더 볼까? 무착문희(無着文喜, 821~900)선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오대산을 올랐다가 함께 사는 대중이 몇이냐고 물었다. 문수(文殊)일 것 같은 노인이 '앞 셋셋 뒤 셋셋(前三三後三三)'이라 했다. 맑게 사는 숫자라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뜻보다 숫자에 시선을 주어보자. 앞의 이야기처럼 앞에도 삼삼(三三)이라면 자연스레 아홉(九)이요, 뒤에도 또한 아홉(九)을 더함이 아니라 곱함이어야 하므로 구구는 여든 한 명(九九八十一)이라 풀린다. 100명이라고 하고 싶었겠지만 10 곱하기 10은 잘 쓰지 않으므로 9를 찬수(滿數)로 생각했으리라.

화두(話頭)는 신비하거나 이상한 말보다는 그저 말이라고 풀어야 한다. 그 말 속에 깃든 제 뜻·본 뜻·행간에 숨은 뜻 곧 상황에 맞는 쓰임새를 찾도록 물음을 던지는 말이다. 그저 말이지 말머리가 아니다.

운문 문언(雲門文偃, 864~949) 선사의 '부처는 마른 똥막대기(乾屎橛)'라는 말처럼 그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똥막대기가 무엇이지 알고 있었고,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들 또는 그에게 그 쓰임새를 분명하게 일러줬던 것이다. 깨끗이 씻어서 말려두어야 또 쓸 수 있고 그래야 깨끗하고 건강해진다.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중생을 건전하고 슬기롭게 만드는 이가 바로 부처라는 말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작업·업무·회의·수행의 현장에서 제대로 문해력이 작동하는 말이되 쓰임새가 적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말이 화두(話頭)다. 오해해서 중생으로 다투지 말아야 부처님의 슬기로운 제자다.

장애인 이동권, 중장기적 접근 필요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4월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달이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가려면 사회의 장애인접근권이 중요하다. 장애인 접근권에는 건축물의 이용과 접근권, 교통 등의 이동권, 정보 접근권 등이 있다. 그 중의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동시에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다. 지하철 집회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도로, 모든 여객시설, 모든 교통수단이 이동권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이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편의 시설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실제로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 밖에만 나가면 보도가 아직도 울퉁불퉁하고 좁은 보도가 휠체어 사용자가 불편하고 길말뚝, 간판, 화분 등 여러 장애물도 시각장애인의 길을 막는다.

장애인 이동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행권, 대중교통 이용·접근권, 여객시설 정비 및 자가 운전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한다. 길 위에서 보도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연계되고 보도의 유효폭 확보, 평평한 바닥 마감, 보행 장애물의 제거도 좀 더 이뤄져야 한다. 대도시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택시와 저상버스가 늘어나고 있으나 열악한 환

장애인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 기반해
편의시설, 이동권 관련 법률 통합해야
장애인 삶 개선은 교통약자에도 도움

경에 있는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마을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이 단계적으로 필요하다.

건축물의 접근과 이동은 하나로 연계하는 법률의 통합, 즉 건축물의 편의시설을 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이동편의시설을 규정한 '교통약자법'의 통합하다. 그리고 5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고 예산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 이것은 장애인단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해야 하는 일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 이 말속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주며 차별 없이 사는 의미가 담겨있을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해서 각자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 전에 서로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장애인들의 노력으로 개선되는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을 준다.

장애인들이 무엇인가를 개선하고자 행동을 할 때 그 순간의 불편함만을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의 힘든 삶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내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있고 나로 인해 불편과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고 그들을 위한 배려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교계에도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한다. 요사이 많은 사찰이 법적 기준에 맞추어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는 사찰 환경이 되었다. 그런데 시설을 다 갖추고도 안내 표지판이 없어 불편을 겪기도 하고 종무원들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지 않아 안내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사찰 내 갖춘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종무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이 좀 더 세심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하다.

社 說

석전 스님 전서 발간 추진 환영한다

"석전 스님은 내전이고 외전이고 도대체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박식했다. 나는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 없었는데, 오로지 석전 스님에게는 물어볼 것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천재라고 불렸던 육당 최남선이 석전 박한영 스님을 이르며 한 말이다.

위당 정인보 역시 석전 스님에 대해 "대관절 석전 스님은 한국 땅 어디에 가나 모르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근대기 한국 문학, 사상계를 이끌었던 걸출한 인물들이 입 모아 그 학식과 인품을 칭송했던 석전 스님은 한국 불교학과 불교교육 발전의 초석을 놓은 선지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스님의 전서나 관련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국대가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석전 박한영 전서' 발간 계획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윤 총장은 "동국대 역사를 재정립하고, 동국의 혼을 바로 세우려면 석전 스님을 조명해야만 하며, 그 첫 걸음이 '석전 박한영 전서' 간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사 연구에 있어 당대를 이끈 선지식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석전 스님과 같이 교육·사상·불교·독립운동 등에 걸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선지식일 경우 전서를 비롯해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불사는 꼭 필요하다. '석전 박한영 전서'가 불교학·문학·사학·교육학 등 '석전학'이라는 학제적 연구에 초석을 놓기 바란다.

제주 4·3사건, 진실규명 노력 이어져야

제주 4·3사건은 제주도와 한국 현대사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다. 76년 전 극한의 이념대립으로 약 3만여 명의 제주도민의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조부모가 희생됐지만, 어느 곳에서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연좌제로 인해 폭도로 구분됐던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제주 4·3사건 당시 불교계의 피해는 상당하다. 당시 14개 사찰 16명의 스님들이 목숨을 잃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총살 10명, 수장 2명, 고문 후유증 사망 1명, 일본으로 도피 1명, 행방불명 2명이다.

희생된 스님들은 이념과 관계없이 민중의 편에 섰다. 당시 관음사 주지 오이화 스님은 무장대를 숨겼다는 의혹으로 토벌대에게 고문을 당했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성봉 스님은 사찰에 마을 주민을 숨겼다가 총살당했다. 신흥연 스님은 마을 청년들을 절에 숨기고 밥을 해먹였는데, 토벌대의 죽창에 생을 마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사노위원이자 4.3사건 희생자유족인 법상 스님은 "특별법이 제정됐다고는 하지만 미군의 책임이 누락되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제주 4·3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불교계 역시 이를 잊어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평일 아침 7시 30분!
보고 싶은 스님들을 만나보세요



법상스님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 토 23:15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 문광스님
본방송 화 07:30 재방송 화 19:30 / 토 12:00


송산, 일각, 지형스님의 이판사판 - 맛수다 시즌2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20:30 / 일 14: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시즌3
본방송 목 07:30 재방송 목 19:30 / 일 19:00


동훈스님의 다음 생 이야기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 일 23:15
스마트하게 BTN불교TV를 시청하는 방법
TV를 통해서 시청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케이블TV는 지역별 채널번호가 상이하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
www.btn.co.kr 홈페이지 접속 후 ' 온에어' 메뉴 클릭!
앱을 통해서 시청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 BTN불교TV' 검색 후 무료 다운로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유튜브 검색창에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검색 후 구독과 알림설정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